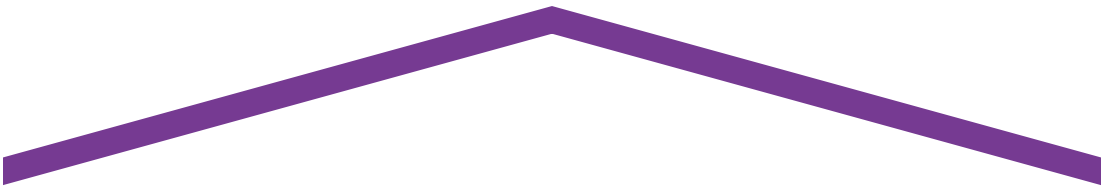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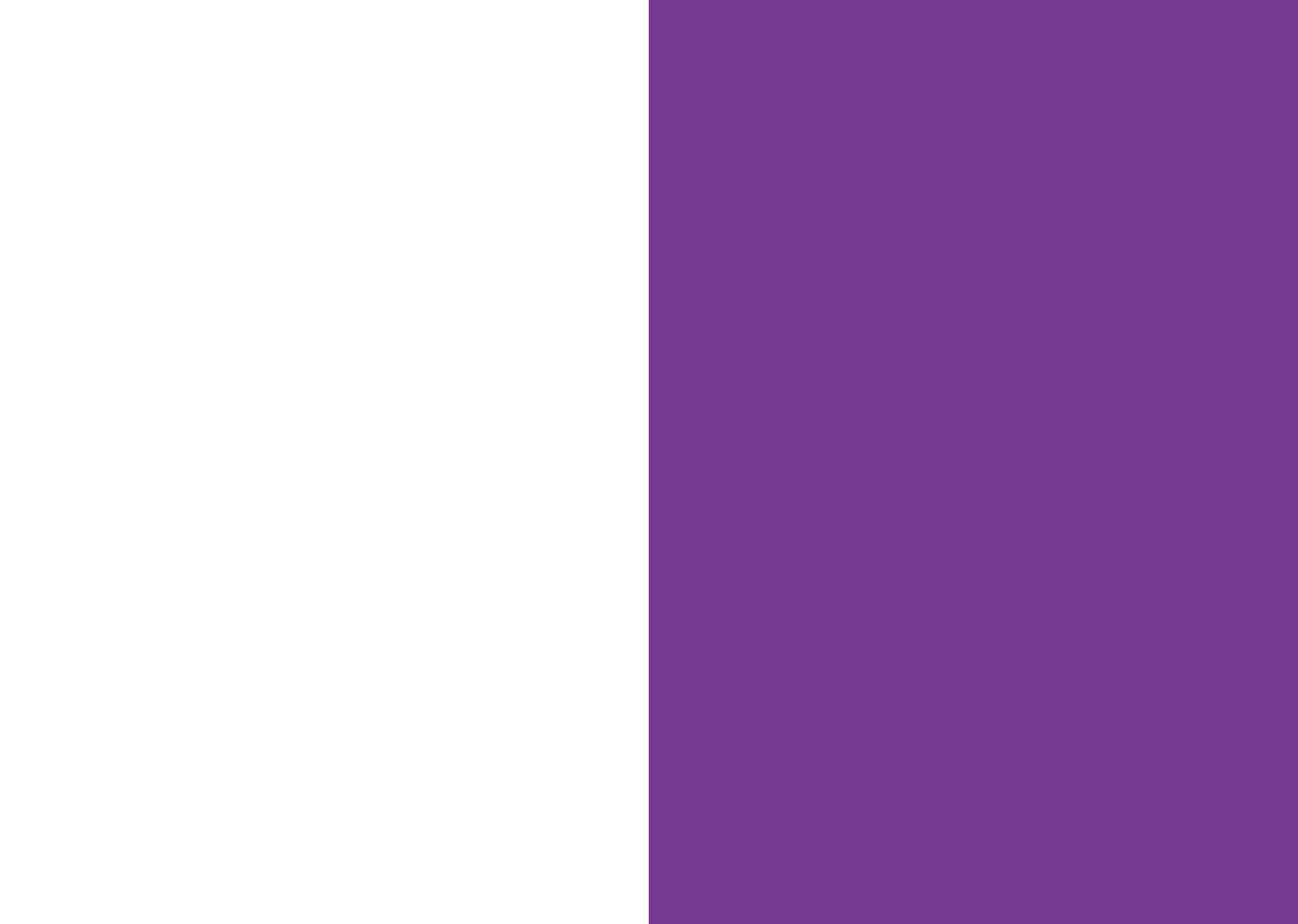


**2019 은평 혁신교육지구
결과보고서**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



가.	프로로그	6	라.	어린이·청소년 사업	90
-	여는 글 (실무협의회 위원장)	8	0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91
-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설명	12	02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100
-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중점분야	16	03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105
			-	지역사회교육콘텐츠연계	105
나.	어린이 사업	20	-	시민교육	106
01	은평구평생학습관_마을누림프로젝트	21			
02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_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	26	마.	민·관·학 거버넌스	110
03	구립중산정보도서관_어린이 도서관 원정대	28	01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112
04	물푸레생태교육센터_마을 숲은 생태교과서	30	02	2019 은평혁신교육축제	120
05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_생명이 깃드는 생태텃밭	33			
06	은광지역아동센터_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36	바.	2019 평가	126
07	문화집단 너느로_라미연극놀이학교	40			
08	유진문화센터_놀면서 배우는 세시풍속	42	사.	2020 계획	132
09	노는엄마협동조합_보드페스타	45			
10	한국아트공예협동조합_은평의 보물찾기	47	아.	부록-생각나눔 글	140
11	민화팩토리_내 마음에 꽃 피다	50	-	청소년 글	142
12	엔젤스헤이븐_꿈 더하기	52	-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글	148
13	은평소년소녀합창단_모두 함께 합창단	54	-	답는 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164
다.	청소년 사업	56			
01	도음사회적협동조합_오감체험진로팡팡	57			
02	은평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_은평대전	58			
03	협동조합 청청_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와 2050혁신가와 진로체험	62			
04	진로컨소시엄_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64			
05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_마을 속 사회적경제	66			
06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_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	68			
07	도원교육_MIT 기후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세계기후게임	71			
08	꿈꾸는 다락방_은평 불광천 청소년 꿈지대 ‘언더 브릿지 댄스 페스티벌’	74			
09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_ 위기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학교 프로그램 ‘꿈채움’	76			
10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_중학교 1학년 대상 ‘자살 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78			
11	마음컨택 상담센터_고등학교 1학년 대상 ‘생명 이끄미’	80			
12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_마이 원더풀 라이프	82			
13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_은평마을속학교 오케스트라	84			
14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_청소년 동아리 지원	86			

포롤로그 - 은평혁신교육지구

은평혁신교육지구?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평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실현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돌아보며

2015년 1월, 제주도 여행 중에 우연히 받게 된 다섯 통의 전화.... 모두 외면했지만 결국 여섯 번째 전화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은평혁신교육지구와 함께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하신 분은 지금 충암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은평혁신교육지구에 발을 내딛고 청소년 자치활성화 분과 위원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사지원단으로, 정책위원으로,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바쁘게 활동하였고, 2018 정책위원장에 이어 2019 실무협의회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능력에 맞지 않게 은평혁신교육지구의 중심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위원장’이지요. 늘 이런 역할이 제 능력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혹시 전체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 속에서 근근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중간평가와 2020년도 사업의 계획까지 약속했던 제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마을-학교 연계를 중심으로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 ‘공교육 혁신’을 기치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은평구는 잘 준비된 민간네트워크와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받아 안았고, 마을교육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1기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은평구는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으로 마을-학교 연계를 진행해왔던 터라,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구성하다보니 교육콘텐츠 연계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마을 단위 활동과 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학교나 교사들의 참여는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을은 이미 준비된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학교와 함께 하고 싶는데 학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들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업무를 지역이 전담하여 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의 빚장이 조금씩 풀리고 연계에 깊이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 진행하기 위해 설치했던 ‘혁신교육지원단’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거버넌스의 회의와 모임들을 챙기고 학교와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찾기위해 분주하게 뛰고 노력했던 결과가 마을-학교

연계의 질적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2017~2018년은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각 분과협의회의 대표를 맡거나 각종 거버넌스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교사들이 등장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수가 늘면서 학교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캠프와 워크숍, 각종 교육 등 주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들어 은평구 소재 68개 학교 모두가 마을결합형학교로 대표되는 마을-학교 연계교육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이제 은평혁신교육지구는 학교별, 급별 맞춤형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화교재와 교구를 개발하였고 마을의 전문가들이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담장이 점점 낮아지고 마을과 학교가 좀더 가까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실무 담당 부서 담당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실무 운영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버넌스 내부의 상호 협조도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발전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생일에 자치구

주무관들이 꽃다발을 보내는 일이 어디에서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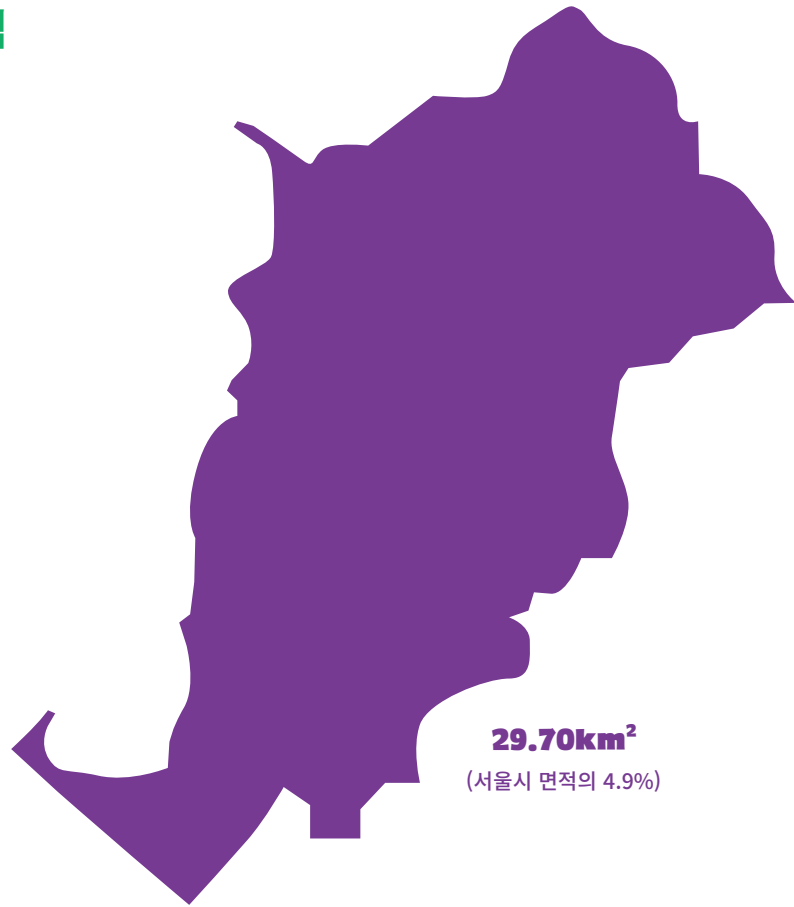
2019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는 지난 12월 6일에 이루어진 3기 혁신교육지구 중간 평가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평가단은 은평혁신교육지구의 사업실행 과정에 대해 “초·중·고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다양화 되었고, 청소년을 주체로 세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별도로 전해받은 성과지표별 평가 결과에서도 사업계획, 예산 집행, 거버넌스 운영, 마을활동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개 혁신교육지구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함께했던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2단계의 성공적 시작으로 바탕으로 이전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은평혁신교육지구의 질적 성숙을 위해 함께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
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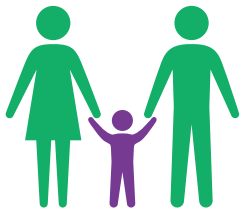
은평구 현황 Eunpyeong-gu

면적



인구

483,473명
(204,396세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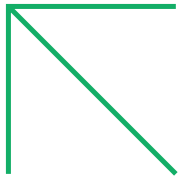
68개교
(초 30, 중 18, 고 18, 기타 2)



은평구 교육 현황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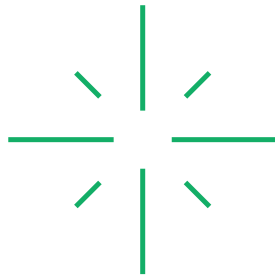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 수	68	30	18	18	2
학급 수	1,885	908	422	500	55
학생 수(명)	45,146	21,360	10,304	13,048	434
학급당학생수	23.9	23.5	24.4	25.9	13.5

은평혁신교육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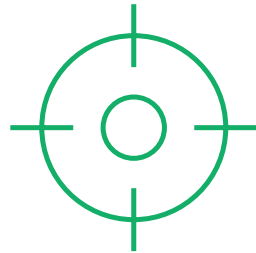
방향

민주시민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성장 지원



비전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



목표

학교-마을 협력강화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내실화

추진과정

- 민·관·학 거버넌스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 수립
- 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 참여
-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확대 및 마을-학교 협력 체제 강화
-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원칙

- 민·관·학의 소통을 증가시키자
- 어린이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며 사회변화를 반영하자
-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자
- 복잡한 용어·형식·절차는 줄이고, 교육 현장에 맞는 독창적인 은평의 롤모델을 창조하자

2019년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

- 어린이 사업 14개
- 청소년 사업 15개
- 어린이·청소년 사업 8개
- 민·관·학 거버넌스 2개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중점분야

1. 마을을 누비다

마을과 지역을 학습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삶과 삶이 일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말산, 불광천 등을 살살이 다니는 생태탐방과 동네 이름에 숨어있던 역사와 동네 안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은평의 보물찾기, 마을과 학교를 번갈아 가며 노는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2. 청소년 자치

- 1) 5.2.2 학급자치활동 지원
 - : 초, 중, 고 152학급
 - : 자치, 참여, 토론을 위한 학급자치활동 지원
- 2) 청소년조직네트워크 (꿈꾸라 캠프)
 - : 자치조직 소속 청소년 네트워크
 - : 지역의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활동 공유
- 3) 청소년 동아리 지원
 - : 학교와 마을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

3. 마을을 누비다

- 1)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 지원
 - : 2019년 257학급 지원
 -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기 융합 프로그램 지원
- 2)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오감체험진로팡팡’
 - : 중학교 18개교 1학년 전체 학생 대상 진로 탐색
 -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다양한 직업군 체험
- 3) 은평대전 (은근히 평범한 대학생 언니오빠들의 전공이야기)
 - : 일반고 10개교 1~3학년 전체 대상
 - : 교실 전공강연과 전공박람회

4. 심리정서

- 1)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 : 예방교육 (초등-인권 / 중-자살·자해 / 고-생명존중)
 - : 심리정서 지원 (상담멘토)
 - : 긴급지원 (마을-학교 솔루션 회의 관련기관 연계)
-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지원
 - : 아웃리치,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검정고시 등)

5. 학교문화

- 1) 마을결합중점학교
 - : 학교마을 협력기반 중점학교 지원 (중1개교)
 - :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 : 마을결합형교육과정 및 교사연수 지원
 - : 초11개교, 중9개교, 고5개교
- 2) 수업방법개선 협력강사
 - : 교과수업 코칭 강사 지원으로 학생 수준별 학습 지원
- 3) 예술로 방과후
 - : 초등학교 ‘모두함께 합창단’
 - : 중학교 ‘청소년 뮤지컬단’
 - : 관현악단 ‘마을속 오케스트라’
 - : 언더브릿지 댄스 페스티벌

6. 민관학 거버넌스

- 1) 학생
: 학생들의 주체적 성장을 위한 자치 지원
- 2) 학부모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자치 지원
- 3) 교원
: 학교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
: 교사연구모임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7. 교육콘텐츠

2012년

- 은평의 실험 - 교육콘텐츠 사업 시작

2014년

- 교육콘텐츠 사업 + 교육우선지구사업

2015~2016년

- 교육콘텐츠 사업 + 혁신교육지구사업(1기)

2017~2019년

- 혁신교육지구 사업(2기)
- 마을방과후학교, 교육콘텐츠사업

1)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 : 전체 293개
- : 영역별

문화예술	체험탐구	진로	심리인성
114	58	71	50

- : 66개교, 700만원 지원

2) 은평교육자원박람회

- : 2019. 12. 18. (수) 13:00~18:00

마을에서, 학교에서
“살만하네, 재미있네!”

마을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마을관계망을 통해 서로를 돌본다
안전한 마을

교육주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교육의 변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
함께 만드는, 공동체 경험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 강화

어린이 사업

기관(단체명)

은평구평생학습관	마을누림프로젝트	21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	26
구립중산정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원정대	28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마을 숲은 생태교과서	30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생명이 깃드는 생태텃밭	33
은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36
문화집단 너느로	라미연극놀이학교	40
유진문화센터	놀면서 배우는 세시풍속	42
노는엄마협동조합	보드페스타	45
한국아트공예협동조합	은평의 보물찾기	47
민화팩토리	내 마음에 꽃 피다	50
엔젤스헤이븐	꿈 더하기	52
은평소년소녀합창단	모두 함께 합창단	54

1. 은평구평생학습관

마을누림프로젝트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6.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지역주민, 초등학생
- 3) 사업내용
지역화교재, 은평마을탐방,
보드게임놀이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강사 양성, 학교 수업 추진

추진배경

마을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
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이
마을과 이웃을 이해하는 교육환경
조성

추진내용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 이해를
돕는 교과과정 및 수업자료
개발(지역화교재), 관련 놀이콘텐츠
확대 개발(보드게임) 및 학교수업
운영, 마을강사와 함께 마을자원
체험수업 운영(탐방)

학교	내용	활동인원
탐방 및 보드게임 수업 운영	5개교 25학급 25회	약 625명
부모와 함께하는 마을탐방	8월	32명
마을탐방강사 양성과정, 보드게임 교육콘텐츠 개발과정	7월, 10월	35명

사업을 마치며

혁신교육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협치’와 ‘공동체’이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2015년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초기 구상에서부터 함께 참여했다.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2015년 첫 해는 학교 교사들이 마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6개교 교사 대상 마을이해 연수를 운영했다. 교사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6년부터 반 아이들 대상 마을탐방까지 20개교로 확대 운영하였다. 마을탐방 콘텐츠의 학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마을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수업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초등3학년 사회교과자료와 더불어 과정과 연계한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5년째 운영 중이다.

마을누림 프로젝트가 특별한 점은 바로 ‘함께’ 그리고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은평구의 교육전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활발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마을누림 프로젝트는 교사(학교), 지역 기관, 주민, 구청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학습관의 ‘마을누림 프로젝트’이다.

함께, 첫 번째 _교사(학교)

은평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친절한 ‘마을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습관은 교사 중심의 연구모임을 지원하였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과 교과과정과 결합된 ‘교사용 마을학습자료’가 2018년에 나왔다. 그리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19년 은평지역화교재 ‘함께 사는 은평’이 제작되었다. 그동안의 마을학습자료는 지역과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교사 주도하에 지역기관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함께, 두 번째 _지역주민

마을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주민들이 은평에는 많았다. 마을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탐방수업과, 마을을 테마로 하는 보드게임 수업에 지역주민들을 강사로 참여시켰다. 2019년 올해, 마을테마 보드게임 개발과 마을탐방 양성을 통해 강사로 활동할 지역주민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명의 보드게임 강사, 22명의 마을탐방 강사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함께, 세 번째 _지역기관

진정한 교육 돌봄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였다. 학습관은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마을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습관을 중심으로 마을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참여하였고 탐방과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학습-체험-놀이’를 연결하다.

학습관은 세 참여주체를 기반으로 보다 더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왔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습 자료로 마을을 가르치고, 지역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을 체험(마을탐방)하고 놀이(보드게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체험-놀이’가 결합된 통합적 학습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온전히 마을을 누릴 수 있는 바람에서 말이다. 이 바람은 곧 실현된다. 올해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3개구가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된 교재는 내년 은평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배포된다. 내년이면 은평의 초등 3학년 학생들은 맘껏 ‘마을누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다
- 마더 테레사 -

‘함께 함’이 주는 힘은 매우 크다. 마을누림 프로젝트는 모두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함께 하는 힘을 믿기에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지속적으로 마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은평 안에서 아이들이 마을과 상생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목표인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길 꿈꿔본다.

2.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19. 04. 01. ~ 2019. 12. 20.

2) 추진대상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반,
책 읽어주는 학부모

3) 사업내용

특수학교부터 특수반 아동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
흥미와 자연스러운 책 읽기 습관화
양성

추진배경

독서교육은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반에서도
필요성을 인식

추진내용

- 특수학교부터 특수반 아동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흥미와 자연스러운 책 읽기
습관화 양성
- 책 읽기 수업 58회 2,232명
- 부모교육 10회 108명



사업을 마치며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책 읽기의 필요성과 흥미를
높이는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도에는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반으로 확대하여 지원 사업을 펼쳤다. 특수반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으나 특수 교사가 진행하는 시간을 또 다른 강사가 들어와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새롭게 신청한 특수반 학교와 기존의 특수학교의 전
학년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학년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독서교육받은 아이들이라 책 읽어주는 시간을
기다리고 책 읽기의 재미를 알고 있고 진행하는 강사도 아이들도 즐거운 수업이
되었다. 저학년은 학교 적응도 되지 않은 채인 아이들도 많아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아이가 소리를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수업을 하고 난
후, 매일 아이들을 상대하는 담임 선생님들의 노고에 마음까지 숙연해졌다. 여전히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지만 아이들도 변화하고 책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일반학교 특수반을 제외한 특수학교만이라도 지속적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라본다.

사업의 한 편으로 책을 읽어주는 독서명예교사를 위한 책 읽어주는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독서명예교사로 활동하던 강사들이 무작정 책읽기를 하며 어려웠 던
점을 고려하며 책 읽어주기 처음 시작인 책 선정부터 읽는 방법, 간단한 체험 활동까지
책을 읽기 수업을 한 경험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독서를
기본교육으로 하고 있는 요즘, 학교에서 신청하기보다는 학부모회로 활동하는
부모들이 내 아이를 위한 독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 의도한 바와 달리 더 이상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 공공도서관 안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으로 펼쳐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에게 마냥 책을 읽어주거나 읽으라고 강요하는 책 읽기에서 흥미를
일으킬만한 체험으로 주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매회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부모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처음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느낌과 재미를
알았다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냐고 묻는 부모도 있었다.

2019년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로 진행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특수학교의 책읽기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책 읽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 북스타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모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이 역할로 함께 책 읽는 문화를 어려서부터 부모와 마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혁신교육지구의 효과로서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한다.

3.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원정대 - 책 속으로 떠나는 열 가지 세상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02. ~ 2019. 11. 23.
- 2) 추진대상
초등학생 어린이 및 학부모
- 3) 사업내용
책을 매개로 한 한국십진분류표별 작가 특강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 (12회 진행 612명 참여)
- 초1개교 연계 9회 (506명)
- 지역주민 대상 3회 (106명)

추진배경

책을 매개로 어린이들의 창의력·상상력·소통 및 표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

추진내용

지역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십진분류표별 작가 특강 및 체험활동 진행



사업을 마치며

‘2019.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우리 도서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증산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과 총 아홉 번의 만남을 가졌다. 한 학년 전체 학급과 한 번에 만나기도 하고, 한 학급씩 만나기도 했으며, 두 반을 묶어 함께 만나기도 했다. 함께 하는 인원 에 따라 독후활동의 재료 및 난이도 차이가 커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기도 했지만,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다.

증산초등학교 어린이들과의 수업은 ‘사업 소개 ▶ 한국십진분류법 교육 ▶ 작가 특강 ▶ 독후활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사업을 기획하였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할 때 적용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 열 가지 분류 안에서 각각의 주제를 선정하여 작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았었다. 어느 한 가지 주제로만 편향되는 것을 막고, 흔히 접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작가 분께 양해를 구해 한국십진분류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교사와 작가 분들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넌지시 고백해오기도 했다.

지난 8개월 간 코딩,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 멸종위기 동물, 국악(가야금), 한글, 세계문화유산, 옛이야기, 문학 등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작가 분들이 증산초등학교 3~6학년 총 21학급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던 어린이는 알고 싶었던 정보를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관심이 없던 어린이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어느 한 가지 분야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세상을 보고, 듣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의 끝에서,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들어주고, 생생한 질문을 마음껏 던져 준 증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2019년, 우리 도서관은 본 사업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래를 선도해 나갈 어린이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앞으로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4.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마을 숲은 생태교과서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5. 28. ~ 2019. 11. 22.
- 2) 추진대상
서울어울초등학교 1학년 4학급,
서울은빛초등학교 1~2학년 14학급,
서울진관초등학교 1~2학년 13학급
- 3) 사업내용
마을 숲의 생태적 가치와 배움의
장. 관찰 및 오감체험과 다양한
놀이, 활동교과 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활동장소

인근 숲과 공원(기자촌근린공원,
탐골생태공원, 이말산)

추진배경

자연생태 오감체험활동,
교과과정학습연계

추진내용

- 야외 활동(관찰, 놀이, 체험활동),
살아있는 교육의 장, 생태감수성 고양
- * 5~6월 13회기
 - * 10~11월 31회기



사업을 마치며

잘되고 좋았던 점

학교 주변의 숲과 공원을 탐방하며 다양한 식생과 특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자연생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숲길을 탐방하며 그 곳에 깃들여 사는 다양한 생명들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다양한 동식물이야기와 관찰활동 그리고 연계되는 생태놀이 활동을 무척 즐기며 참여했다. 산에 대한 거부감(흙을 만지고 냄새 맡는 등의 활동이 더럽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 여김)이 있던 아이들도, 활동이 끝난 후에는 흥미롭게 느끼고 재미있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곤충관찰을 했을 땐, 곤충을 더럽고 징그럽다며 만지길 꺼려했던 아이들도 귀엽고 소중하다는 말을 하면서 생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숲과 공원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고 즐거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산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책으로만 접했던 숲의 생명들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함으로써, 생명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야외활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또 다른 면은 교실 밖에서 맘껏 자연을 느끼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으며, 탐험과 모험의 기회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이 주는 즐거움과 직접체험의 효과는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으로 읽힐 수 있었다. 좁은 교실을 벗어나 자연에서 몸으로 직접 느끼고 활동하는 동안 친구들과 간의 충돌도 없었고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와 배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주제와 연계된 생태놀이, 협동놀이, 전래놀이 등 다양한 활동에 즐거워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는 모습도 활동 중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예로 비탈길을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손을 내어주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단 격려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아이들이었다. 다음에도 또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요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활동으로 이어지기 바라는 맘이 컸다.

‘마을 숲은 생태교과서’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오감체험과 발견의 기쁨을 통해 새로운 인식과 신체 활동이 주는 건강함은 큰 효과라 볼 수 있다.

더불어 마을 숲에 대한 친근함과 애정으로 확대되어 좀 더 자연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평가해본다.

5.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생명이 깃드는 생태텃밭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 개선사항

길지 않은 활동시간과 야외활동 중에 설문지작성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였다. 마무리 활동의 흐름도 떨어지게 하였으며, 시간도 촉박했다. 쉽게 설문내용을 만들고 스티커붙이기로 흥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2학년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았다. 1회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와 설문지 필요성과 방법이 고민되었음 한다.

학교와의 소통부분에선 야외활동의 특성상 안전한 활동을 위한 복장과 준비가 필요한데 미리 공지를 하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아 아이들 활동에 안전주의가 많이 필요했다. 특수아동이 있는 경우, 보조 선생님의 동행이 필요했음에도 동행이 없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반 두 모둠으로 구성 진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원이 많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했다. 학교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인솔이 필요했으며, 주 강사 외 보조강사 등 봉사 인력이 구성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을 주었다.

향후 개선되길 바라며 활동시간을 2교시에서 3교시로 늘리고 주/보조강사인력 안배와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겠다.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22.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초등학교 4개학급
(북한산초 1학급, 수리초 2학급, 구현초 1학급)
- 3) 사업내용
계절별 텃밭활동과 자원순환활동,
텃밭놀이와 요리활동
- 어린이교육 40회 진행

추진배경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에게 흙과 생명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추진내용

텃밭활동과 그곳에 깃드는 생명을 접하는 경험, 자연의 순환 원리와 실천 활동의 기회 제공



사업을 마치며

수리초등학교 5학년 가람반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텃밭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때문인지, 매 시간 아이들의 활동이 매우 진지했다. 아이들이 순번을 정해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준 보람이 있어, 모든 작물들이 매우 잘 자라고 수확도 좋은 편이었다. 연간 지속되고 매번 야외활동으로 이뤄지며, 수업이 없는 기간에도 자발적 활동이 있어야 결과가 잘 나오는 생태/텃밭 활동의 성격으로 볼 때, 담임선생님의 의지와 협조가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한 텃밭활동이 아니라 수확물을 요리하는 수업이나 새 모이대 만들기, 재활용 관련 수업을 구성한 것도 좋았다. 작물을 길러서 먹는 즐거움에 더해서 직접 기른 것의 소중함이랄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 텃밭이 바깥의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많은 생물들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매 시간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경험이고, 좋은 내용 알려주셨다고 감사인사를 해주셔서 뿌듯했었지만,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너무

좋은 수업이라, 내년에 더 많은 반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보셔서 아주 보람이 있었다.

- 생태텃밭 강사 정수운

봄부터 여름을 지나 초겨울까지 10번의 시간 동안 만난 북한산초 6학년 13명은 천혜의 자연환경의 교정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이다. 쉬는 시간에 텃밭으로 달려가 작물에 물을 주고, 수확의 즐거움도 아는 생태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처음 만나 작은 화분으로 심은 허브는 텃밭상자 가득 자라나 싱그러운 향기로 기쁨을 주고, 시원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즐거움도 주었다. 지렁이 상자를 만들 때는 깹깹~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지렁이가 굶을까 봐 쉬는 시간에도 풀을 뜯어다 주던 마음씨 예쁜 아이들이다. 작은 수의 아이들과의 수업이다 보니 토론하고 의견을 묻고 충분히 아이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순환하는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조금 불편해도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아이들이 되었다.

마지막 수업으로 새 모이대 만들기를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진지한 자세로 만들기에 집중하고, 직접 만든 새 모이대를 달아주기 위해 교정의 나무에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기특했고, 쉬는 시간마다 새 모이대를 관찰하고 비어진 새 모이를 채워주며 눈빛을 반짝일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다.

- 생태텃밭 강사 최수안



6. 은광지역아동센터

함께 돌보고 성장하는 마을 아이들의 놀이활동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29. ~ 2019. 11. 10.
- 2) **추진대상**
녹번동 초등학교 놀이동아리 50명
(놀이맘 4명 참여)
- 3) **사업내용**
학교, 마을을 돌아다니며 놀이터를
찾아 아이들 스스로 놀기
- 4) **놀이장소**
 - 녹번초등학교 운동장
 - 은평초등학교 운동장
 - 양천누리터어린이공원
 - 은평평화공원
 -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숲
 - 롯데은평몰 옆 부지

추진배경

어린이 친화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추진내용

- 1) **놀이밥**
놀이동아리 아이들 50명이 마을,
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원 등에서
놀이맘과 함께 안전하고 신나게
노는 활동
- 2) **놀이장**
놀이를 팔고, 놀이를 사는 놀이
플리마켓. 친구들과 마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며 놀이장을
꾸리는 활동



사업을 마치며

엄마들의 생각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친구들에게 놀이를 사고팔며, 놀이 가르침을 교사나 어른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친구들에게 놀이를 알려주는 놀이장터는 새로웠다. 처음엔 같이 온 센터끼리 학교끼리 노는 분위기였지만 금세 서로 친해지고 같은 학교, 아는 친구, 같은 반 친구, 다른 센터, 다른 학교, 함께 놀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모두 놀이를 통해 금세 친해졌다. 친구가 다니는 다른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더 멀리 뛰어다니며 하늘 높이 원반 던지기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유를 느꼈다. 모래놀이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터널을 만들고 신나했다. 종료시간이라 아쉬워한 표정들을 잊을 수 없다.

운동장의 흙, 모래놀이터의 모래, 자연을 발로 손으로 직접 경험한 날이었다. 엄마들끼리도 각각의 초교를 떠나 아이들의 엄마로 친해지고 은평구에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한마음이 된 시간이었다. 끝으로 의견을 내자면, 엄마들이 제안하는 놀이, 아이들이 개발하는 놀이, 선생님이 어릴 때 하시던 놀이,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 등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제안해보자.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놀이(비 오거나 눈 오거나 추울시), 교실에서 하는 놀이(공기놀이 제안하며 우리가 직접 놀이에 관한 책을 내보는 건 어떨까.

- 임정민(녹번초 학부모)

처음에 마을 속 놀이에 참여할 때에는 아이들이 해맑게 뛰며 놀이하는 걸 보기만 했는데 저두 함께 아이들과 같이 놀이에 참여하며 놀아보니 저두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노는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도 좋은 체험 놀이에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욱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채영(은평초 학부모)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도 서로 서먹서먹하고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논다는 게 어색하고 마음껏 못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서로에게 동화되어 서로서로 도와주면 같이 놀이도 찾아가며 벽을 부수어 버리는 것 같았다. 참 신기했다. 처음엔 그렇지 않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재밌어하고 승부욕을 불태우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타박상을 입어도 웃고 떠들고, 부상 따윈 상관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 채혜정(은평초 학부모)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구분되는 어려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2개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공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막상 녹번 동네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과 서울혁신파크, 동네 놀이터를 번갈아 가며 월 1회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위를 잊고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머드팩놀이 등 다양한 놀이 소재들을 구상하고 적용하려고 했으니 놀이공간 사용에 대한 제한과 주변의 민원 우려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IT의 발달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주로 혼자 스마트폰이라는 친구와 게임을 통한 일방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신체를 접촉하며 소통하고 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협력관계를 만들고 변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어려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놀이 공동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며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 권미연(은평초)

“아, 괜히 왔어. 집에서 게임이나 할 건데.”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녹번초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정글짐 위에 혼자 앉아있던 하늘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담은 혼잣말 같은 거였죠. 다른 학교 운동장인 데다가 처음 보는 아이들까지 있으니 몸도 마음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달마다 만나서 놀 때는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놀 때가 거듭될수록 아이들과 같이 놀고 까불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슬쩍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했던 그거 또 해요.”
“뭘, 어떤 거?”
자기 나름 시늉을 해가며
“아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요. 그거 하게 애들 좀 모아봐요.”

학교 운동장, 공원, 바닥분수대, 놀이터... 아이들과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것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뛰어다니고 잡고 까불고 장난치고 그런 시간만 쌓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쌓임’이야말로 놀이가 아이들 속에서 꿈틀꿈틀 대며 살아나게 한 가장 센 힘이었습니다. 쌓여가는 그 시간 위에서 스스로 놀았던 하늘이처럼요. 더 좋은 놀 테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많은 놀 때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른들이 더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늘이가 가르쳐준 것 아닐까요.

- 고길희(골목놀이연구소)



7. 문화집단 너느로

마을이 함께 하는 라미연극놀이학교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은평구 초등학생
- 3) 사업내용
연극놀이를 하면서 감성, 창의성,
사회성을 기르고 공동체를 배운다
- 15회 진행 16명 참여

추진배경

학업 스트레스 대신 신나게 놀면서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성장한다

추진내용

놀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연극을 함께 만든다
「뮤지컬 '내친구 뽀빠」



사업을 마치며

잘된 점

요즘은 아이들 기다리기, 남의 이야기 들어주기를 매우 힘들어한다.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어 빠른 템포에 익숙해 있으며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발표하지도 못한다.

라미연극놀이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은 연극활동을 통해서 대본을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기하는 과정을 통해 기다림과 배려를 배운다. 바른 자세로 나의
대사를 또박또박 말하는 연기를 연습했다. 아이들에게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혁신교육사업으로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이었다.

좋았던 점

가정폭력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눈을
맞추지 못했고 힘없는 말투로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결과
발표회 즈음해서는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추며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
냈다. 무엇보다도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에피소드

공연은 오롯이 출연자의 몫이다. 무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과 발표회 날,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공연 중에 대사를
잊어버리는 아이가 종종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재치 있게 넘어가 주었고 서로
도와주고 받쳐주며 공연을 잘 끝낼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공연 준비를 위해 엄마들이 모여서 의상, 소품을 함께
준비했던 즐거운 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아쉬웠던 점

제한한 사업비에서 절반을 지원받은
터라 대본 쓰기를 직접 해볼 수
없었다.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하고
대본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문학적
감성을 향상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8. 유진문화센터

놀면서 배우는 세시풍속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19. 04. 19. ~ 2019. 12. 31.

2) 추진대상

대은초등학교 1~2학년

3) 사업내용

계절 변화에 따른 풍속을
전래놀이를 통해 탐구하고
체득하는 활동

- 15종목 4회 진행(376명)

추진배경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추진내용

절기 별 세시풍속

체험활동(전래놀이, 절식, 풍습)

사업을 마치며

우리 조상들은 철에 따라 어울리는 행사와 놀이를 통해 일 년 열두 달을 지혜롭게 살아왔으며, 이에 따라 생겨난 세시풍속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현대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손때 묻은 유산에 깊은 향수를 느끼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전통과 뿌리를 찾는 민속놀이 체험학습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학업으로 항상 바쁘고, 나 혼자만의 놀이인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즐기던 선조들의 지혜로움이 담겨있는 전래놀이를 통해 다양한 풍속을 배울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기획한 본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다하길 바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은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놀이’ - 듣기만 해도 즐겁고 가슴이 뛰는 낱말이다. 놀이는 그 놀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규칙과 질서를 먼저 창조해 낸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하여, 이기심이 아닌 협력과 배려, 창의력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옳고 그름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놀면서 배우는 풍속 체험으로 철 따라 여름과 가을을 살아낸 조상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단오맞이는 돼지씨름을 주 종목으로, 공기놀이, 죽마놀이, 팽이치기,
딱지치기를 하며 단오선을 만들고, 창포물에 머리와 손을 씻기도 하고...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절식인 오려 송편을 만들고, 강강술래, 대문놀이, 말뚝이
떡 먹이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모듬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친밀과 질서를
찾아가려는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 또한 잠시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역시 놀이는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는 흡인력이 최고인 것 같다.

첫 회 수업 시, 한 어린이는 낯을 몹시 가려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를
꺼리고 이야기도 섞지 않은 채 담임교사의 손만 잡고 다녀 못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지나치지 않은 보살핌으로 자연스레 활동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조금씩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도구를 만지기 시작한다. 모듬에 섞여 함께 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거들될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강강술래 노래에 맞추어 왼쪽 오른쪽 나폴나폴 뛰는 모습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본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놀이가 조상들만의 옛 놀이가 아닌 현재의
놀이와도 어우러지게 접목함으로써 민속놀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함께, 나, 너,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친밀한 유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넓은 놀이문화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해 본다.

9. 노는엄마협동조합

보드페스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1. ~ 2019. 10. 31.
- 2) **추진대상**
교육(청소년), 행사(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연령)
- 3) **사업내용**
테이블 매니저 교육 후 보드페스타
행사 개최

추진배경

건전한 세대 통합 놀이문화 확산

추진내용

- 1) **청소년 테이블 매니저 교육**
- 6월~7월 초 4회 교육 25명
- 2) **보드페스타 행사 개최**
- 2019.07.13. 40명



10. 한국아트공예협동조합

사업을 마치며

6회째 진행되는 보드페스타는 이제 노는엄마 협동조합 뿐 아니라 은평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중,고 청소년들이 테이블 매니저로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불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특히 올 해는 참여자 대부분이 중 1 남학생들이었는데 장난기 많고, 산만한 아이들이 이번 보드페스타 테이블 매니저를 경험하고 나서 책임감도 가지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방식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회를 구성해 보았다. 체험과 대회 외에 내년 사업을 위해 아나바다 코너와 내가 만든 보드코너를 신설하여 선물교환과 직접 보드를 제작해보고 전시를 통해 시연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점은 새로운 시도였다. 내년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내가 만든 보드를 직접 전시,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아나바다 코너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활동이 보드페스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은평맘에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여 더욱 풍성한 하루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었다.

마을의 아이들, 청소년, 가족들의 의미 있는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보드페스타가 매년 예산 확보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은평의 보물찾기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7. 01. ~ 2019. 07. 31.
- 2) **추진대상**
녹번초등학교
- 3) **사업내용**
은평의 아이들에게 내 고장 문화재와 상징물 등 은평의 보물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추진내용

은평의 보물찾기 수업진행
(압화 석고방향제 만들기, 팝업북 만들기 등)



사업을 마치며

1.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활동하는 손길이 많이 서툴렀음에도 끝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였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수업이었다.
2. 아이들은 은평구에 살면서도 은평구에서 유명한 게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했다. (ex. 코스모스 등) 나는 아이들에게 은평에서 유명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특히 은평구의 꽃인 코스모스를 이용해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은평구의 대표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겠다고 대답하여 좋았다.
3. 같은 날 각기 다른 반에서 연달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서로에게 '나 어떠한 활동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집에 가는 내내 계속 생각이 났다.
4. 수업하던 도중 아이 한 명이 개인작품을 망쳤다. 그러자 같은 모둠의 아이들이 남은 재료를 십시일반 모아, 그 친구에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주었다. (촉박한 시간이었음에도) 요새 아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은평의 보물찾기 수업은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 증진과 아이들의 협동 기초 다지기에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수업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교육되었으면 좋겠다.

허스토리마실 협동조합

은평구는 조선시대부터 파발이 지나가는 교통, 통신의 길목이었고,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단을 통해 최신의 문물이 들어왔던 곳이다. 또한 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에 이르는 중심지로 양천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은평구만의 역사와 인물이 있었지만, 이를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이번 은평보물찾기는 은평 다시보기의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은평구의 역사적 사건(인조반정-인조별서유기비, 진관사 태극기-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등), 그리고 인물(임진왜란 당시 여성의병장-밥할머니 등)을 알리고 이와 함께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숨은 이야기와 명소가 많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앞으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미래에 은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문화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길 바란다.

교육앰헨즈협동조합

3년 전에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교육분과원들이 뭉쳤다. 지역 알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우선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교육앰헨즈 대표가 전체적인 기틀을 잡고 기업들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앰헨즈는 입체 팝업북 큐브에 맞춰서 7개의 상자를 통해 은평구의 유물 유적을 정리하고 남는 공간에 16개 동유래를 담았다. 이번에 혁신사업을 하면서 녹번초등학교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 샘플을 보여줄 때 어떻게 서프라이즈를 할까 고민하다가 눈을 감고 수업 시작을 하였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눈을 뜨고 샘플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대단해요” 이런 아이들의 아우성이 나를 춤추게 하였다. 팝업 입체북을 만들며 아이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을 하였다. 스토리텔링으로 은평의 역사와 큐브 내용으로 퀴즈를 맞추게 하여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코맘협동조합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지역의 이름이 바뀌거나 없어진다. 익숙했던 지명중에 “기자촌, 구파발”이란 지명은 3호선 지하철 역명(구파발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은평의 보물찾기는 은평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알게 하고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다. 은평의 새는 비둘기임을 알게 되고, 은평의 꽃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아이들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옥모양의 비누 틀로 비누를 만들어 보여주며 “은평의 자랑인 이것은 무엇 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와대요”, “기와집이요”라고 답한다. 그럴 때마다 이 모양은 한문화 특구로 지정된 은평의 자랑인 진관동에 위치한 한옥마을의 한옥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이렇게 아이들은 은평의 보물들로 만든 비누 틀로 EM(유용한 미생물)과 천연재료를 혼합하여 예쁜 비누를 만들어 보는 재미와 EM과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를 더해주며,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



11. 민화팩토리

내 마음에 꽃 피다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6. 11. ~ 2019. 07. 16.
- 2) 추진대상
은평구 초등학교 5~6학년
(갈현초, 대은초, 연광초)
- 3) 사업내용
나만의 소품 디자인과 기획, 조선시대 민화를 융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예술활동

추진배경

한국의 전통문화와 우리 그림
민화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추진내용

전통그림 민화 중 책가도, 화조도,
초충도, 봉황도 등을 소품에 담아
디자인해볼 수 있으며, 꽃 그림을
실제 생화를 통해 재현해볼 수
있다.

사업을 마치며

민화, 한국의 전통 그림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 청소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에서 은평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민화를 공유하고자 했다. 이번에 진행한 <내 마음에 꽃피다> 프로그램은 민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꽃을 주제로 한 구성으로 화조도, 모란도, 십장생도, 국화도 등을 이론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민화는 한자로 이름이 구성되어있으며, 조선사와 함께 발맞춰 유행한 덕분에 어려우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뜻을 풀이해보고 나의 생활 속에, 집 안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순식간에 친근한 것이 되어버린다. 수업에 주로 참여한 대상은 초등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민화를 활용하여 나만의 민화 디자인 소품을 디자인하였으며, 꽃(생화)을 사용하여 꽃꽂이를 해보고 동시를 써보며 우리 전통문화와 그림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가졌다. 본 적은 있지만 알지는 못했던 우리 겨레 그림 민화를 그려보고, 늘 길목에 피어있지만 다루는 법은 몰랐던 꽃을 만져보면서 아이들은 잠시나마 즐거웠길 바란다.



12.엔젤스헤이븐

꿈 더하기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은평구 초등학생 100명
- 3) **사업내용**
후엠아이, 행복한독서, 후엠아이 II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자기탐색 기회 제공 및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

추진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활동일자	내용	활동인원
프로그램 개발	2019.3.25	프로그램(후엠아이 II) 1차 개발회의(1회)	4명
	2019.4.24	프로그램(후엠아이 II) 2차 개발회의(1회)	4명
강사교육	2019.5.7	후엠아이 강사교육(1회)	6명
	2019.5.14	행복한독서 1차 강사교육(1회)	12명
	2019.5.21	후엠아이 II 1차 강사교육(1회)	5명
	2019.5.22	행복한독서 2차 강사교육(1회)	11명
	2019.5.29	후엠아이 II 2차 강사교육(1회)	4명
프로그램 운영	2019.5~11	후엠아이(8개 기관x10회=80회)	60명
		행복한독서(6개 기관x10회=60회)	68명
		후엠아이 II (5개 기관x10회=50회)	36명
프로그램 평가	2019.12	프로그램 전반 평가회(1회)	21명

사업을 마치며

은평구 아이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꿈 더하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후엠아이, 행복한 독서, 후엠아이 II’ 과정을 진행하였다.

후엠아이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가치관탐색, 비전수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응답하였다. 행복한 독서는 다양한 도서를 읽고 워크북,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여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도서를 추가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한편,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9년 신규 개발한 후엠아이 II 프로그램은 진로, 직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 더하기 사업을 통해 은평구의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13.은평소년소녀합창단

모두 함께 합창단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2. ~ 2019. 12. 01.
- 2) **추진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생
- 3) **사업내용**
초등학교 합창단 창단 및 합창수업
진행

추진배경

합창단 창단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에 합창 강사를 파견

추진내용

합창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예능교육 실시

세부내용	활동일자	내용	활동인원
녹번초등학교 합창단 운영	2019.6.13.~ 11.29.	합창수업 진행(12회)	42명
은진초등학교 합창단 운영	2019.5.1.~ 11.29.	합창수업 진행(12회)	36명
은평초등학교 합창단 운영	2019.4.1.~ 11.29.	합창수업 진행(12회)	44명
은평방과후센터 합창단 운영	2019.5.1.~ 11.29.	합창수업 진행(12회)	28명
모두함께 합창 대축제	2019.11.29.	합창연주회	약 150명

사업을 마치며

학교와 단체가 개별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와 소통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사업 진행이 늦어져 학교별로 배정할 수 있는 수업시간이 적었으며, 체계가 전부 달랐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담당 선생님들에게 전부 개별로 연락,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규모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어 학교 선정과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학교와 학생 측의 적극적인 반응과 빠른 전달과 확인이 되어 처리과정은 빨리 이루어졌다. 학교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어떤 학교는 수업 후기까지 작성하여 사업의 성과 여부를 떠나 합창과 가르침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합창의 아름다움을 전달했으면 한다.



청소년 사업

기관(단체명)	사업명	
도음사회적협동조합	오감체험진로팡팡	57
은평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은평대전	58
협동조합 청정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와 2050혁신가와 진로체험	62
진로컨소시엄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64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마을 속 사회적경제	66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	68
도원교육	MIT 기후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세계기후게임	71
꿈꾸는 다락방	은평 불광천 청소년 꿈지대 ‘언더 브릿지 댄스 페스티벌’	74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기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학교 프로그램 ‘꿈채움’	76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살·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78
마음컨택 상담센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생명 이끄미’	80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마이 원더풀 라이프	82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마을속학교 오케스트라	84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청소년 동아리 지원	86

14.도음사회적협동조합

오감체험진로팡팡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관내 중학교 1~2학년
- 3) **사업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운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진로.
직업탐색의 꿈을 키운다.

추진배경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개최로 청소년의 진로관을
확장한다

추진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개최

사업을 마치며

관내 18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오감체험 진로팡팡’을 마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2017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노하우와 학교의 신뢰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는 물론 담당 선생님들도 참여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애견수업으로 푸들과 말티즈 두 마리도 고생이 많았고, 샌드수업이나 드럼 수업, 래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짧은 공연을 갖는 것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또 요리수업후에는 직접 만들어 먹는 신나는 간식 시간이 주어졌다. 라이브 음악에 샌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될 때면 큰 탄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아쉽게도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프로그램 두 개를 빼야 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10개 모두 수업을 한 곳도 상당히 많았다. 내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을 찾아갈 것이다.



15.은평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은평대전(은근히 평범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전공이야기)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2. 01. ~ 2019. 11. 30.
 - 2) **추진대상**
관내 10개 일반고 청소년 및 대학생, 교사, 지역 기관 관계자
 - 3) **사업내용**
멘토교육, 전공강연, 전공박람회, 비전위원회, 일반고 교사협의회 등
- 적성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간판과 성적에 맞춘 대학진학은 문제점이 많음
 -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여 방황하거나 유턴입학(전문대 입학)을 하는 경우 있음
 - 자신을 파악하고 학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은평대전' 제공
 - 은평대전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과 학과탐색 가능

추진배경

추진내용

대학생 멘토 교육, 교실 전공강연, 전공박람회 및 특상, 청소년비전위원회, 일반고 교사협의회, 컨소시엄 공동사업

세부내용	활동일자	활동내용 (회)	활동인원
은평대전	2019.2.~11.	멘토교육/협의회/부스참여(14회)	394명
		전공강연(13회)	4,477명
		전공박람회(1회)	1,358명
		비전위원회 5기(11회)	148명
		일반고 교사 협의회(6회)	69명
컨소시엄 공동사업	2019.2.~11.	컨소시엄 협의회(12회)	80명
		컨소시엄 공동사업 청소년이노베이션 로드(1회)	87명

사업을 마치며

관내 10개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은평대전(은근히 평범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전공이야기)'은 입시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진학 안내가 아닌 은평구 출신 대학생 선배들의 실질적인 멘토링을 통해 학과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대학생 멘토들이 학교 교실로 찾아가는 전공강연과 다양한 전공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볼 수 있는 전공박람회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전공강연과 박람회를 하기 앞서 대학생 멘토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멘토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심화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연과 자료의 질을 높이고 멘토들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9개 일반고 청소년 4,253명을 대상으로 총 191개 전공강연을 진행했고 11월에는 10개 일반고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78개 전공부스와 11개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평소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전공에 관한 정보들을 은평구 출신 대학생 선배들에게



설명 듣고 질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대학생 멘토들은 활동을 준비하며 자신도 성장하는 기분이었다고 열정적인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은평대전 전공강연과 박람회 외에도 3개의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첫 번째로 일반고 진로교사로 구성된 은평대전 협의회가 운영되었는데 일반고 청소년들을 위한 은평대전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했다. 두 번째로 일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소년비전위원회가 운영되었는데 일반고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 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전공박람회 당일 미션부스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지구사업 진로분야를 함께하고 있는 컨소시엄 협의회가 운영되었는데 올해에는 새롭게 공동사업으로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공개방송’을 진행하여 4개 기관의 사업을 공개방송의 형식으로 알리는 작업을 했다.

은평대전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학교 교사와 지역자원의 다양한 연계와 더불어 멘토로 참여했던 많은 고등학생들이 다시 대학생이 되어 멘토로 참여하며 은평대전은 지역을 잇는 청소년 진로진학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사례공모전에서 은평대전의 사례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은평대전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마을교육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16. 협동조합청청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와 2050혁신가와 진로체험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 3) **사업내용**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배경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함

추진내용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실시, 서울혁신파크 진로체험 실시

세부내용	활동일자	활동내용 (회)	활동인원
디지털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교육)	2019.4.3.~ 12.11	영락중 1기(10회)	43명
		영락중 2기(5회)	
		선정중(8회)	
		마을반(10회)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2019.4.24.	진로체험(1회)	192명

사업을 마치며

벌써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다. 청청이 진행한 사업인 2050 혁신가와 진로체험은 4월 24일, 즉 사업이 시작되고 얼마 후 바로 시작된 1회성 사업이 되었다. 9개 팀이 협업을 하는 만큼 서로간의 네트워킹이며 친밀감이 더 커져서 좋았으나 아쉽게도 소음 문제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팀들이 조금 있었다. 아쉬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그런지 별 탈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캘리그라피, 3D펜 제작, 도우아트, 책만들기, 라디오 체험 등 체험을 친구들이 좋아했었다.

또 다른 사업인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 수업은 애들이 정말 좋아했다. 수업 초반에 영상제작법을 가르쳐주고 이후에는 계속 만들게 도와주니 학생들이 영상을 자주 만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영락중은 1기와 2기가 있었는데, 1기 친구들이 거의 그대로 또 신청할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 영락중 디미크반과 정암 미용고 학생들과 협업을 하여 미용&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뷰티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걸 영상으로 남겼다. 정말 좋아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정도였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17.진로 컨소시엄

청소년이노베이션로드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은평구 청소년 100명,
컨소시엄협의회 50명 총 150명
- 3) 사업내용
미디어 공개 방송 형태로 운영.
참여 학생 성과 공유, 소감 발표

추진배경

은평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편일률적인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교육 욕구
해소와 미래 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함

추진내용

- 1) 공개방송을 통한 사업소감 발표회
참여기관
은평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 도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청청, 은평구사회적
경제협의회
- 2) 청소년 기획팀의 행사 기획
청소년들과 청년멘토로 구성된
청소년 기획팀이 공개방송을 기획
- 3) 영상 아카이빙
 - 컨소시엄 기관의 사업을
영상자료로 아카이빙
 - 총 10건의 자료(드림아지트 4건,
청청 2건, 도움 2건, 은사협 1건,
공개방송 1건)



18.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마을 속 사회적경제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27. ~ 2019. 12. 20.
- 2) 추진대상
중고등학생 동아리
- 3)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마을의
기업을 체험 및 탐방하고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보기
- 4개 동아리 연계 (59명)

추진배경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회문제 인식을 통해 진로의식
고취 필요

추진내용

사회적경제 기본수업과 마을의
기업들 체험, 탐방, 가상기업
아이디어대회, 포럼



사업을 마치며

승실고, 영락중, 덕산중, 진관중학교의 동아리 수업으로 사회적경제가 ‘진로’ 및 ‘마을’과 연계하여 진행이 되었다.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마을의 각 기업들을 소개하고 체험 및 탐방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와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마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가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비록 여건상 탐방이 안되거나 혁신축제 참여도 못하고 수업 동기가 떨어졌던 학교도 있었으나, 사회적경제 수업을 궁금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에 실질적 체험을 수반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승실고의 경우 매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자 논의가 되었고, 혁신축제와 마을 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먹거리를 판매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진로분과 컨소시엄에도 참여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였고, 게스트로 참여했던 학생 이외에도 방청객으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다양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2. 01. ~ 2019. 12. 21.
- 2) **추진대상**
은평구 청소년자치조직 청소년 및 담당자
- 3) **사업내용**
네트워크지원,
청소년자치조직네트워크 운영,
자치조직 네트워크캠프 진행

추진배경

지역의 청소년자치조직 역량 강화
및 조직 간 네트워킹

추진내용

은평구 내 청소년자치조직
네트워크 지원 및 네트워크캠프
진행

사업을 마치며

2015년 은평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자치활성화 사업으로 시작 된 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는 어느덧 2019년, 4년차를 맞아 진행되었다. 매 해가 그러하겠지만, 2019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고, 지난 4년 활동의 열매를 맺게 된 소중한 한 해였다.

2019년의 첫 시작은 은평청소년자치조직 담당자 네트워크였다. 은평에는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각 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자치조직들이 마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조직에게는 자치조직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담당 실무자가 있다. 담당자로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가져야 청소년 자치조직들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확장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그들이 직접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기위해 마음을 맞추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7월, 은평청소년자치조직네트워크캠프 ‘한여름밤의 꿈꾸라캠프’가 진행되었다. 총 12개의 자치조직 청소년 95명이 함께한 2박 3일 동안에는,

2019년 제4회 은평청소년자치네트워크캠프 ‘한여름밤의 꿈꾸라캠프’

- **일시** 2019. 7. 12(금) ~ 7. 14(일) / 2박3일
-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시 소재)
- **대상** 은평구 참여기구, 지역청소년자치조직 소속 청소년 98명
※ 각 참여기구/지역청소년자치조직 총 12곳 참여
- **주최**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 **공동주관** 은평구청, 서부교육지원청
- **주요내용**
 - 각 조직별 소개 및 교류
 - 청소년지역네트워크체계 구성 논의
 - 2020년 참여예산 청소년정책과제 사업 제안
 - 민주적인 회의진행방법 관련 워크숍 진행
 - 장기자랑, 조직별 교류활동



2020년 청소년 참여예산 과제 및 청소년네트워크체계 구성이 논의되었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말 한마디가 모여 은평구 청소년 정책이 되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입시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놓쳐지고 있는 ‘청소년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또한, 캠프에서 청소년자치조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위해 마음과 시간을 모은 15명의 청소년들과 시작한 출범준비위원회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가는 연말연초이지만 내년 4월 창립(출범)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해주는 것. 신나에서는 그저 과정의 시간을 함께했을 뿐이다. 청소년이 더 이상 사업의 대상으로 동원되지 않고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더더 치열하게 청소년들과 마주하고 싶다. 청소년을 응원한다. 참여에서 자치로!



20. 도원교육

MIT기후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세계기후게임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19. ~ 2019. 12. 31.
- 2) **추진대상**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 3) **사업내용**
기후협상단이 되어 온도상승폭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MIT 기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협상결과를 검증함

추진배경

청소년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 및 혁신교육지구 내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부재

추진내용

참여학생을 6개국 대표로 나눈 뒤 1, 2차 협상 진행 후 협상 결과를 검증하는 기후게임 진행



사업을 마치며

참여 학생은 6개 국가의 국적을 뽑기로 배정받는다. 미리 준비된 국가별 테이블 위에는 차등을 두어 간식이 놓여있다. 누구나 많은 자원이 있는 화려한 테이블에 배정받고 싶지만, 국가를 지정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뽑기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다양한 높낮이의 탄성이 교실을 채운다.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40분을 소요해 현 지구의 상황과 기후변화 관련 세계의 움직임, 게임 룰을 브리핑받은 각 국의 협상대표들(참여자)은 A4용지 2장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독한 뒤에야 2100년까지 온도 상승폭을 2°C 아래로 내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2017년부터 기후비상사태(Climete Emergency,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 유럽의회가 2019.11 선언함)에 대응하는 세계 청소년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레타툰베리의 등장, 파리와 호주 청소년들의 학교파업이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기후소송과 학교파업에 동참했다.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90년대에도 있었다. 등교가 주 업무인 미래세대가 파업하고 나서야 어른들은 작은 관심을 주었다.

2019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세계기후계임을 제안하며 2018년 25개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체 콘텐츠를 살펴보았다. 환경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텃밭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 심각성에 비하면 기후환경 이슈를 전면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적었다. 다양한 콘텐츠 속에 녹여져 다루어졌으리라 짐작은 했으나 아쉬움이 컸다. 환경교육을 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며 생소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설득했다. 텃밭, 생태 등 실천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과 병행된다면 더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생소하지만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했다.

세계기후계임에 참여한 중, 고등학생들은 150분의 참여 후 다시 20분의 디브리핑 시간을 갖는다. 우리 세계에 만들어진 구조와 직면한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서술형 소감문을 작성한다. 소감문 속에는 다양한 나라의 협상대표에 몰입하며 느낀 감정이 담겨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해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큰 영향을 받는다. 강대국과 선진국에게는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동의하지만 화석연료산업 축소를 위한 기름 가격 인상에는 반대한다.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니? 다른 나라들 간의 협상에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참여자는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 누군가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다. 대응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는 란에는 빼곡히 실천계획과 의지를 담는다.

‘성장의 한계’는 2050년을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절망적인 해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복잡한 협상 실패 끝에도 기후환경을 위한 실천과 의지를 다지는 청소년을 보면 무거운 책임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진다. 우리는 저마다 꿈을 갖고 성장한 청소년이 기후환경 앞에 무력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기후계임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서 실천적 환경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국제정책, 세계기구의 노력을 살피는 거시적 관점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병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주신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낸다.

〈NEXT MIND _ WORLD CLIMATE REVIEW〉

활동국가	환경운동가				
나의 감정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놀란다	복잡하다
소감 및 이유	<p>환경운동가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도가 2°C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각국의 나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슬프다. 그리고 이 계임을 통해 크게 다가와 있었던 기후 현안에 대해서 계임을 통해 함께 다가가고 또 우리가 각국 정상에 되어서 기후 문제에 대해 한발짝 더 뚝 다가갈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p>				
내(우리)가 할 수 있는 일	<p>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환경을 실천해야겠다.</p>				

〈NEXT MIND _ WORLD CLIMATE REVIEW〉

활동국가	중국				
나의 감정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놀란다	복잡하다
소감 및 이유	<p>중국의 인구가 13억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을수록 많았지만, 증가율 3%라는 엄청난 수치일 줄은 몰랐다. 또한 이런 엄청난 증가율이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중국인이 아님에도 배출량 10위인 만큼서 죄송스러움이 들었다. 그렇기에 미래의 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에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제조하겠다.</p>				
내(우리)가 할 수 있는 일	<p>공공수 정화시설과 환경정책</p>				

21. 꿈꾸는 다락방

은평 불광천 청소년 꿈지대 '언더브릿지 댄스 페스티벌'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6. 24. ~ 2019. 12. 21.
- 2) 추진대상
은평구 및 서울지역 청소년 동아리
- 3) 사업내용
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자기계발의
기획과 만족감, 자부심을 제공한다

추진배경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진로를 지원해주며 마을
활동을 활성화

추진내용

- 은평구 평화공원 일대를 활용한
언더브릿지 댄스페스티벌 3회 진행
- 2019. 08. 14
 - 2019. 11. 03
 - 2019. 12. 03

사업을 마치며

언더브릿지 페스티벌의 기획단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 기획단을 보며 놀랐던 점이 많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언더브릿지 회의를 가진다. 단장부터 서기까지 맡은 자리가 있다. 단장의 주도하에 회의가 시작되며 회의록을 적는다. 그 회의 속에서 언더브릿지 페스티벌이 만들어진다. 장소협찬, 포스터 만들기, 홍보, 댄스팀 모집, 행사 진행 등등 모두 청소년 기획단이 해내간다. 언더브릿지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음향사고가 발생했는데 의연하게 잘 대처해주었다. 행사를 마치면 기획단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들이라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의심도 했다. 그 의심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해준다. 기획단을 볼 때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며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 추운 날씨에도 행사 준비하느라 바쁜 기획단들, 마지막 행사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늘 응원한다.



22.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기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꿈채움’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3. 04. ~ 2019. 12. 20.
- 2) **추진대상**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3) **사업내용**
학업중단(위기)청소년 대상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상담 102회
 - 텃밭프로그램 12회
 - 공예프로그램 18회
 - 집단상담 12회

추진배경

취약계층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많은 지역으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추진내용

학업중단(위기)청소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와 연계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897명)



사업을 마치며

‘자퇴나 복교냐’라는 갈등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안전한 환경을 보상받지 못해 큰 불안함을 호소하는 특징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상담자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상담을 해야 건강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라는 고민을 한다. 그러나 후회 없는 선택은 없고 내가 극복해야 하는 선택만 남아있는 사실이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업중단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접근을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정서적인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마음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담, 문화체험, 생태체험활동으로 학업과 별개로 부담감 없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 대인관계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정 감을 갖게 하였다. 물론 안정감을 주는 정서작업은 사업담당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작업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대안이 아닌 새로운 정서지원 프로그램 꿈채움으로 명명하고 싶다.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안정감이라는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청소년들은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다만 어른들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찾기 어려워 할 뿐이다.”



23.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1 대상 자살·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1. 01. ~ 2019. 12. 31.
- 2) **추진대상**
은평구 관내 18개 중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중학교 1학년
청소년
- 3) **사업내용**
은평구 내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살·자해 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19회 3,426명 참여)

추진배경

관내 자살·자해 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추진내용

은평구 관내 18개중 학교 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사업을 마치며

올해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은평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은평구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살·자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8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평구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28.4%),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10.7%),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6.2%)라고 답하였다. 또한 자살, 자해에 대한 상담 신청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관련된 자살, 자해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은평구 내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청소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시간, 예산으로 아쉽게 이번 은평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지도자 교육은 제공하지는 못했다. 자기이해와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청소년 각자가 노력하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며, 건강한 대처방안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관심과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

학교에서 집단상담, 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났

던 청소년들은 여러 유형이 있었다. 고민이 없다고 웃던 해맑은 청소년도 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던 청소년도 있었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번호를 알아가는 등 본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교육하는 시간 중간에 나누는 이야기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 친구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고민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청소년이 힘든 것은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며, 힘든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누군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두라고 생각한다.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있는 청소년에게 고마워하며 청소년의 마음과 언제나 머무르기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24. 마음컨택 상담센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생명 이끄미’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19. 05. 01. ~ 2019. 12. 31.

2) 추진대상

은평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3) 사업내용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학급단위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 학교수 : 18개교
- 학급수 : 108학급
- 학생수 : 2,700명

추진배경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2018
여가부 청소년통계)

추진내용

자살충동 및 자해행동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중재



사업을 마치며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일원으로 은평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이끄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약 1년의 시간들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추억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은평구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명존중의 의미를 알려주고 자신들의 삶을 보다 소중하게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었다.

그런 기우들은 막상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활동을 함께 하며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은평구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 오히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우리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기관으로 연락을 하여 “감사하다, 고맙다,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라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전달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25.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마이 원더풀 라이프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4. 13 ~ 2019. 11. 02.
- 2) **추진대상**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
쉼터 '해솔' 및 여자 청소년
- 3) **사업내용**
오디오팟캐스트 <해솔라디오>
제작 (11회), 브이로그 만들기
수업 (12회)

추진배경

라디오,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 봄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고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추진내용

오디오 팟캐스트 제작 및 브이로그
제작



사업을 마치며

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는 '마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오디오 팟캐스트
녹음과 브이로그 만들기 프로그램 두 가지를 진행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다른 공간에서도 만나보고 싶었다.

오디오 팟캐스트 <해솔 라디오>는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 청소년 쉼터
'해솔' 과 함께 진행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이 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녹음 첫날엔
스피커에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다며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송제작을 위해 대본도 직접 작성해보고 팟캐스트
속 삽입될 음원도 직접 만들어보았다. 후반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싶었으나
일정 조율이 어려워 후반기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다.

영상촬영 및 편집교육을 배우는 <브이로그 만들기> 프로그램은 여자
청소년 친구들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영상촬영 기법과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를 가지고 먹방 브이로그, 우리 동네 소개 브이로그를 제작하였다.
친구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보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서 재미있었고, 마카롱 하나, 흑당 밀크티 음료 하나를 먹고
촬영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표현을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행복하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뿌듯함과 즐거움도 얻을 수
있었다.



26.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마을속학교 오케스트라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01. 02. ~ 2019. 12. 31.
- 2) 추진대상
관내 청소년 및 가족단위 구성으로 진행
- 3) 사업내용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오케스트라 구성 및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장

추진배경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예비음악인을 양성하는 목표뿐
아니라 정서적인 음악적 함양을
일상생활 속 문화로써 자리매김을
위함

추진내용

민관학 거버넌스 창조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10회 이상 크고
작은 연주를 통해서 단원들에게
오케스트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 연합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청소년
음악단체들과의 동반 성장 도모

사업을 마치며

은평마을속학교 오케스트라는 불광, 진관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관현악
합주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의 꾸준한 참가와 끈끈하게 다져진 팀워크를
바탕으로 음악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인 은평마을속학교오케스트라는
클래식부터 뮤지컬, 가요 등 장르를 초월하고 청소년 발레, 청소년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시도하여 은평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27.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19. 04. 01. ~ 2019. 12. 31.

2) 추진대상

은평구 관내 청소년

3) 사업내용

청소년 자율동아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각양각색 지원 사업 ‘개미(개성있고 재미있는)프로젝트’, 서울혁신파크 내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문제중심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내수내만(내 수업은 내가 만든다)프로젝트’ 운영

추진배경

청소년 자율동아리를 직접 운영하고 멘토 도움을 받아 동아리 운영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추진내용

청소년자율동아리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 36개 동아리 (개미 : 27개, 내수내만 : 9개)
- 첫 만남 2019.05.25 (50명)
- 중간모임 2019.08.24. (63명)
- 발표회 2019.12.21. (67명)



사업을 마치며

내수내만 보컬동아리 ‘Famous’ 동아리는 7월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명이 ‘Famous’인 이유는, 아이들이 나중에 음악을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만든 이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러 가는 길은 많이 험난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보컬 트레이닝은 처음인 데다가 막상 아이들이 나를 많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복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난 뒤 걱정은 사라졌고 앞으로 수업할 날짜를 수요일로 정한 후 매주 수요일만 기다려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9명의 학생이 있었고 다같이 ‘멜로망스-선물’ 노래를 부르며 동아리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몇몇 학생은 음악의 길을 걷고 싶은 학생이 있었고, 몇몇 학생은 단지 취미로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온 학생도 있었고,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상태라서 많이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첫 수업을 진행할 때, 많이 떨렸고 아이들 개인의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이 방과후에 집을 가는 것보다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 실력부터 점점하는데 노래하는 방식이 모두가 달랐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각자의 나쁜 버릇 등을 점점해주고 난 뒤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난 후 저와 공동으로 강의하는 ‘민진’선생님과 저는 더욱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 갈현 청소년센터 ‘쉽쉽’ 지하 1층 노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5일에 진행된 은평혁신교육축제에 우리 ‘Famous’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하니 노래방에서 공연 때 부를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와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곡을 가을 감성으로 연습시켰습니다.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부터 만난 아이들의 표정과 눈동자는 설렘에 가득 차 보였고 긴장감도 맴도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혁신교육축제의 규모가 정말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가수도 이렇게 큰 무대와 많은 관중 앞에 오르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첫 무대를 올라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떨릴지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걱정과는 다르게 무대를 자신 있게 마치고 온 아이들이 뿌듯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에게 긴장되고 떨린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공연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시간날 때마다
공연 연습을 해왔습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시간도 가졌고, 내년에도 진행한다면 다시 참가해서
더욱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 올라가 봤으니 아이들은 이제 무대에서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인정받는 가수가 된 후,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닌 같은 가수로서 저와 같이 유명한 무대에 서 같이 공연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다시 한번 혁신교육지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른 동아리 강사님들과 동아리를
위해 고민하고 힘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허민(내수내만 보컬동아리 강사)

구립온평마을문화복지원센터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2023년 온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네 멋대로 해라!

개성있고 재미가 넘치는
내 수업은 내가 만든다!

<p>·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 청소년 누구나</p> <p>· 활동기간 : 5월~12월</p> <p>· 모집형태 : 개인 동아리 20팀</p> <p>· 모집분야 : 내수내만 동아리 10팀</p> <p>· 모집분야 : 주제 ★제한없음★ (특별지원분야 - 미술, 기공, 크리에이티브, 학교교육동아리)</p> <p>· 지원금액 : 동아리별 상이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p>	<p>· 신청기간 : 4월 15일(월) 5월 15일(수) 18시</p> <p>· 신청방법 : 구립온평마을문화복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epafterschool.com)</p> <p>· 심사방법 : 서류심사</p> <p>· 발표일자 : 5월 17일(금)</p> <p>·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p>
---	---

※ 모든 동아리 혁신교육특례
부소관영 및 동아리 발표 참여
필수 (10.11월 예정)

제이동아리 문의 구립온평마을문화복지원센터 혁신교육팀 접수면 070-0872-0475
내수내마을문화복지원센터 접수면 02-6304-3233



어린이·청소년 사업

기관(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91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100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지역사회교육콘텐츠 연계	105
	시민교육	106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마을결합중점학교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1개교 (중1교)	612	489명	중점학교 운영 컨설팅 및 학교별 성장 및 지원 중심의 중간 평가 실시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25개교 (초11, 중9, 고5)	2,670	8,857명	교과 수업 코티칭을 위한 협력강사 채용, 학생 수준별 학습 지원

초등상담멘토 지원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18개교 (초18)	4,060	6,118명	초등 상담 봉사자 인력풀 제공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수업방법개선협력강사 지원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22개교 (초12, 중7, 고3)	6,613	7,405명	마을결합형 동아리 운영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사연수 및 교사활동을 위한 공간꾸미기, 기타 특화 사업

2019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

학교	내용
1 서울구현초등학교	3학년 : 보드게임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 4학년 : 은평 마을 지명의 유래와 문화유산 알기 6학년 : 함께하는 공동체
2 서울대은초등학교	디지털 미디어교육(국어, 실과, 진로)
3 서울어울초등학교	1학년 : 이야기로 만나는 은평 2학년 : 생태텃밭교육 3학년 : 은평의 생활
4 서울은빛초등학교	앓과 삶이 일치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5 예일여자중학교	구산동 도서관마을 연계 수업
6 송실고등학교	송실 마을 축제 송실평화대행진

2019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 예일여자중학교 - 마을결합형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마을결합형 교수·학습지도안 2학년 구산동 도서관마을 연계 수업

관련교과	지도대상	차시
국어, 역사, 도덕, 미술	2학년 전교생 (212명)	1~8/8

학습목표

- * 국어수업시간에 배운 소설을 바탕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문학에 대해 당대인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바탕으로 '나만의 보드게임'을 만들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며, 등장 인물들에 동화되어 일제강점기 식민지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
- * 여럿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며 역할을 담당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대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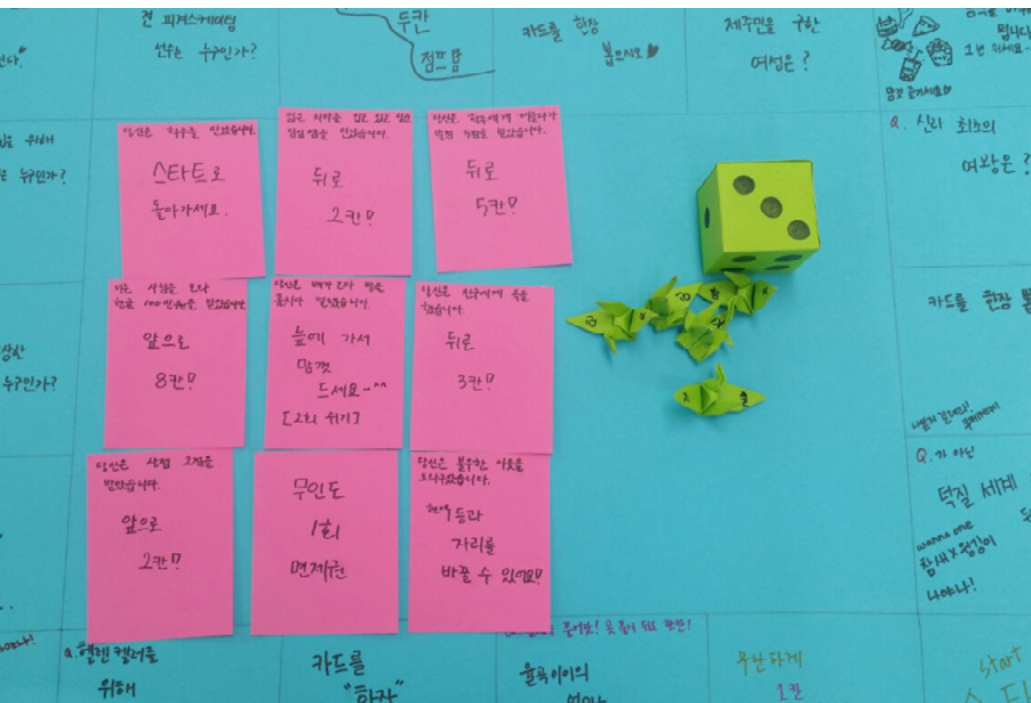
수업방법

모둠별 학습

학습일시

2019년 7월 11일 ~12일 1교시~4교시
(구산동도서관마을 청소년 힐링캠프, 2학년 전 교실)





학습내용

영화감상 및 영화퀴즈 <아이 캔스피크>

7월11일 ~ 12일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1교시		영화(아이 캔스피크) 감상 영화퀴즈 (교○○)			허○○	신○○	양○○	최○○
2교시								
3교시								
4교시								

- ▶ 활동1: 역경을 이긴 사람들 빙고게임 (모둠별 역경 이겨낸 인물 탐구하기)
 - ‘역경을 이겨낸 인물’ 브레인스토밍하기
 - 각 인물의 역경을 이겨낸 일화 찾아보기
- ▶ 활동2: 보드게임 만들고 소개하기
 - 보드게임 만드는 방법 설명 및 안내하기
 - 제작회의 및 각자 역할분담(게임판: 2명, 카드: 3~4명)
 - 재미있는 보드 게임판 제작, 다양한 종류의 미션카드, 인물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퀴즈카드, 주사위, 말 등 제작
 - 인물의 업적, 특징, 일화, 역경을 이겨낸 노하우, 덕목을 바탕으로 퀴즈카드 만들기
 - 보드게임 규칙 만들기
- ▶ 활동3: 모둠별로 만든 보드게임 활동하고 평가하기
 - 보드게임 규칙에 맞춰 보드게임 활동하기
 - 전체적인 수업 소감 나누며 평가하기

정리 및 평가

1. 2학년 학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소외되는 학생 한 명 없이 모든 학생들이 ‘나만의 보드게임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였다.
2. 활발한 모둠별 활동을 통해 1920년대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등장인물들이 처한 개인적·시대적 상황에 대해 공감해봤으며, 현재 자신의 개인적·시대적 상황에도 적용하여 보드게임을 만들어봤다. 또한 현진건에 대한 독서퀴즈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
3. 모둠별로 소설적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상황들에 적용하여 보드게임의 내용을 정하고 이야기 장면들을 구현하여 보드게임을 만들어가는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4. 함께 만든 ‘보드게임’을 직접 활동해보며 소설 속 등장인물에 체화했으며, 서로 만든 작품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활동중심의 수업이었다.
5.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림, 영상 등을 실습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수업이었다.

2019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

에일여자중학교 - 마을결합형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마을결합형 교수·학습지도안 3학년 구산동 도서관마을 연계 수업

관련교과	지도대상	차시
국어, 역사, 도덕, 미술	3학년 전교생 (201명)	1~8/8

학습목표

- * 국어수업시간에 배운 소설을 바탕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문학을 그 당사를 살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운수 좋은 날>, <고향> 바탕으로 북트레일러를 만들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 * 여럿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며 역할을 담당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수업방법

소집단 학습

학습일시

2019년 7월 9일 ~10일 1교시~4교시 (구산동도서관마을 청소년 힐링캠프, 3학년 전 교실)



학습내용

영화감상 및 영화퀴즈 <아이 캔스피크>

7월 9일 ~ 10일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1교시		영화(아이 캔스피크) 감상			허○○	신○○	양○○	최○○
2교시		영화퀴즈						
3교시		(고○○)						
4교시								

- | | |
|---|--|
| <p>* 북트레일러 1</p> <p>1) 현진건의 누구인가?</p> <p>2) 현진건의 단편 / 장편 소설 소개</p> <p>3) 현진건을 찾아라</p> <p>4) 1920년대 리얼리즘 소설의 특징</p> <p>5) <운수 좋은 날>과 <고향> 소설에 대하여 / 독서퀴즈</p> <p>6) 현진건의 소설에 나타난 궁핍에 관한 문제 / 시대 상황</p> <p>7) 우리가 만들어 갈 운수 좋은 날</p> <p>8) 2019년을 중학생으로 살고있는 나</p> <p>9) 나에게 운수 좋은 날이란? 소확행이란? 백년 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p> | <p>* 북트레일러 2</p> <p>1) 북트레일러를 아시나요?</p> <p>2) 북트레일러 유형</p> <p>3) 북트레일러 유형별 동영상 소개</p> <p>4) 모둠 및 조장 주제 선정</p> <p>5) 북트레일러 스토리보드 만들기</p> <p>6)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장면 만들기(12~14장면)</p> <p>- 색깔점토, 싸이펜, 색연필 사용</p> <p>7) 북트레일러 만들 어플 설명 및 안내</p> <p>8) quik 어플 사용 안내</p> <p>9) quik 어플 사용하여 동영상 북트레일러 만들기</p> <p>10) quik 어플 동영상 북트레일러 편집하기</p> <p>11) 완성한 북트레일러 조별로 발표 및 평가하기</p> |
|---|--|

정리 및 평가

- 3학년 학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소외되는 학생 한 명 없이 모든 학생들이 북트레일러 수업에 참여하였다.
- 활발한 조별 활동을 통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하고 무엇보다 1920년대의 소설과 현진건에 대한 독서퀴즈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
- 조별로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이야기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조원들의 역할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 함께 만든 북트레일러를 시청할 때 한 조도 빠짐없이 모두 감상하였고 서로 만든 작품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활동중심의 수업이었다.
-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림, 영상 등을 실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수업이었다.

2.은평구청 시민교육과 마을학교팀

5·2·2 학급자치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2019.05.~12.	304	3,800명	관내 초5, 중2, 고2 대상 학급자치활동 지원

6·3·3 전환기

사업기간	운영차시	대상인원	사업내용
2019.04.~11.	514	6,434명	관내 초6, 중3, 고3 대상 전환기 프로그램 지원

마을대안교육생태계구축

사업기간	대상인원	사업내용
2019.04.~11.	250명	지역사회 유휴공간 구축 대안교육 지원

5·2·2 학급자치 사업 우수사례

‘도움반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

저희는 “학급자치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학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움반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가 5학년 2반의 학급자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움반’이라는 이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라는 뜻으로 차별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기에 차별적 요소를 뺀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학급원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팀, 글쓰기팀, 자료제작팀, 배달팀, 관리팀, 정보수집팀의 6개 팀을 나누고 인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움반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이 손수 쓴 편지를 통해 ‘도움반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그 후, 학급회의를 통하여 이름을 공모한 끝에 ‘사랑반’, ‘자람반’, ‘개별학습반’의 세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세 후보를 대상으로 이알리미를 통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의 투표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개별학습반’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랑반’이나 ‘자람반’은 예쁜 이름이지만 부르기에 다소 헛갈리고, 과한 배려로 꾸며진 이름이라 오히려 새로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개별학습반’은 부르기에 조금 어렵지만 학급이 설치된 목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새로 선정된 ‘개별학습반’이라는 이름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홍보하였고, 얼마 전에는 드디어 도움반의 학급 명패를 개별학습반으로 바꾸었습니다. 2월에는 우리의 프로젝트의 과정을 담은 학급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름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뿌듯했습니다. 요새는 주변의 일들을 ‘우리가 바꿔 볼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좀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 5·2·2 학급자치 사업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구산초등학교 5학년 2반

도움반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

구산초등학교 5학년 2반



학급명패 바꾸는 날



도움반 이름바꾸기 홍보 리플렛



활동결과 학급책 표지공모

찜질방학급 단합대회

증산중 2학년 4반



5.2.2. 학급 자치사업으로, '찜질방 학급 단합대회'만큼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활동을 한 학급이 있거든 나와보세요! 한 인물하는 우리 4반, 모두들 행복해보이죠?



반 친구들 모두와 따끈한 물에 족욕을 하니,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듯 우리 사이도 사르르 녹아내리고 분위기도 훈훈해졌어요. 티없이 맑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평일 이른시간이어서 이용객이 많이 없다보니, 누가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편백나무방에 모여 '진실게임'을 시작했어요. 마치 수련회에 온 것 같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절.대. 비밀!!



찜질방에서 즐겁게 놀다가 먹는 간식은 꿀맛이죠. 담임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마스크팩 20장을 서로 나눠 붙이고 카메라를 향해 모두 '김치~' 활동을 마치고 씻고 나자 모두들 피부가 비단결이 되었다는 풍문!

3.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웃캔!(웃can!) 위캔! (we can!)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2학년 4반



1. 우리가 옷을 기부할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동영상 시청했습니다.



2. 각자 기부를 위해 가지고 온 옷들을 돌려가며 상태 확인을 하였습니다.



3. 확인이 끝난 옷들은 연령대,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작업을 하였습니다.



4. 분류가 끝난 옷들은 다시 여름옷, 겨울옷을 기준으로 하여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5. 분류가 된 옷들의 구분지어주기 위해 라벨지를 만들었습니다.



6. 그리고 기부 업체에 보내기 위해 박스에 포장 완료!

지역사회교육콘텐츠연계_2020. 은평교육자원박람회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12. 18. (수) 13:00~18:00
- 2) 추진대상
20년도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72개 단체 및 개인
- 3) 사업내용
2020년도 은평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참여 단체 및 개인의 콘텐츠와 학교연계를 위한 만남의 장

추진배경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연결동, 공유동 '다목적 홀'

추진내용

- 1) 문화예술체육 26개
 - 전시형 14개, 체험형 12개
- 2) 인성심리정서 11개
 - 전시형 4개, 체험형 7개
- 3) 진로체험활동 21개
 - 전시형 10개, 체험형 11개
- 4) 창의과학융합 14개
 - 전시형 4개, 체험형 10개



시민교육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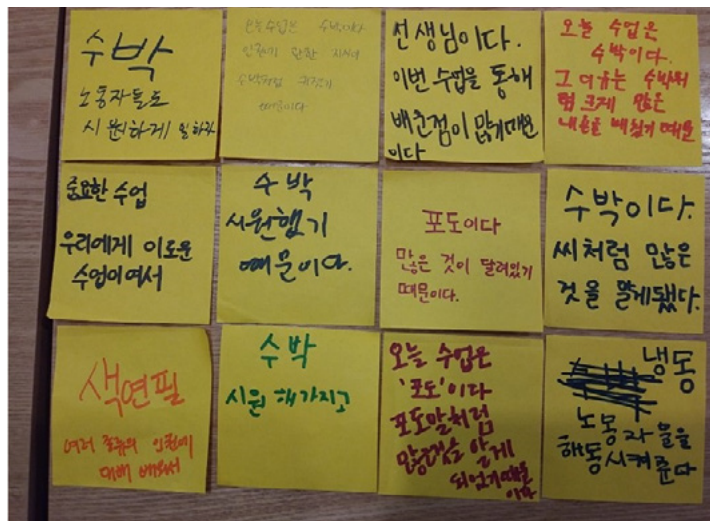
- 1) 사업기간
2019. 03. 02. ~ 2019. 12. 31.
- 2) 추진대상
관내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 3) 사업내용
시민교육(인권, 노동인권, 성인지),
강사 역량강화 및 양성교육

추진배경

인권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보편적 인식 계기 마련, 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건강한 마을 환경 변화

추진내용

강사 역량강화 및 양성과정 운영,
학교연계 시민교육 수업 진행



사업을 마치며

모든 주강사 수업에 협력강사로 들어가서 각 강사마다 진행과 활동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향후 교육 진행에 대해 보완할 것은 없는지 강사마다 특징적인 수업 내용 및 방식을 전체 강사단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교육은 협력강사로만 참여하였다.

이해력, 상상력, 호응도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보다 훨씬 좋았다. 왜그럴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 제도교육이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지혜를 얻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어떤 틀에 가두어 두며 순응하도록 하는 현실이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수업시간 중, 또 수업 후 담임교사와 자연스럽게 수업 진행을 협력하고 의논하는 강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청소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수업 말미에 수업소감을 과일로 표현하였는데, 처음엔 초등학생들에게 과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었는데 기우였다. 기상천외한 답변이 쏟아져 나와 깜짝 놀랐다. 한 예를 들면, 인권교육을 파인애플로 표현한 초등학교6학년생이 있었는데, 파인애플로 표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겉을 보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고, 맛이 없을 것 같지만 껍질을 벗기면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하면서 다양한 맛이 나기 때문예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 삶의 철학이 달라진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교육에서 인권교육은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은평노동인권센터 대표 강화연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동정받을 분들이 아닌 존중받을 분이며

인권은 누구한테나 주어진 신이 내려주는

권리이다

- 초등학교가 지은 ‘노동인권’ 4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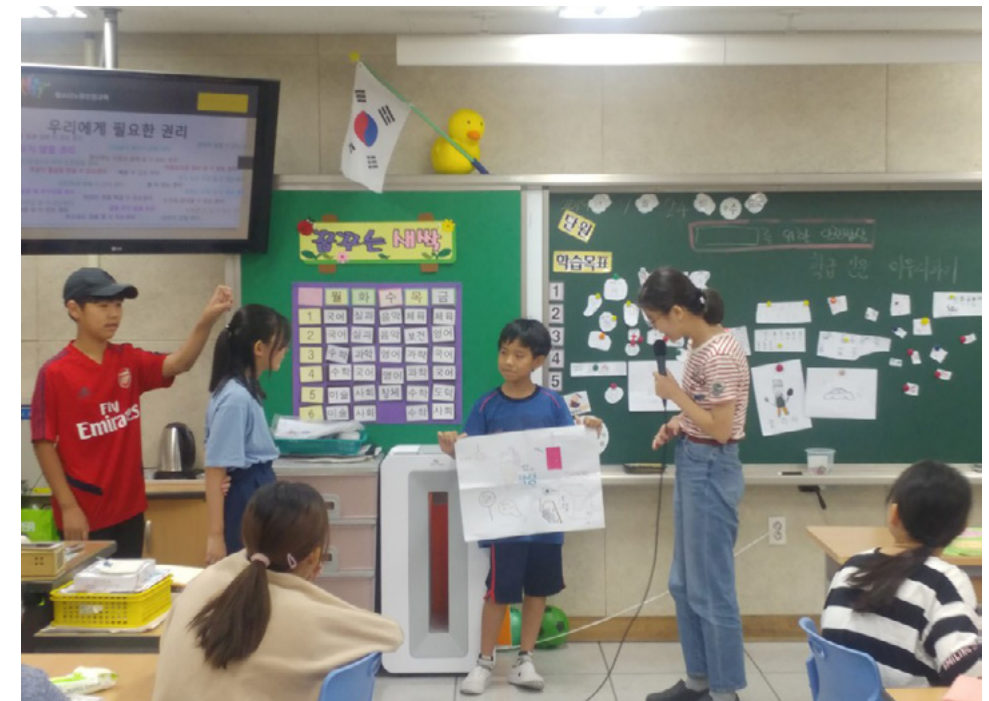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노동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안쓰럽고 불쌍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정이 아닌 존중이라는 표현이 갖는 학생의 태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과 맞는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 노동인권강사 여민희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올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마을과 학교 연계라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은평혁신교육축제 때 우리가 수업했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부스로 우르르 몰려와 “노동인권 선생님들 오셨어요!”라며 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까지 손목을 끌고 와서 무척 반가웠다.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을 밖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처음 느꼈다. 동네 다닐 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지’라는 생각도 함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생각 난 순간이었다.

- 노동인권강사 문미정

“선생님, 인권교육은 어른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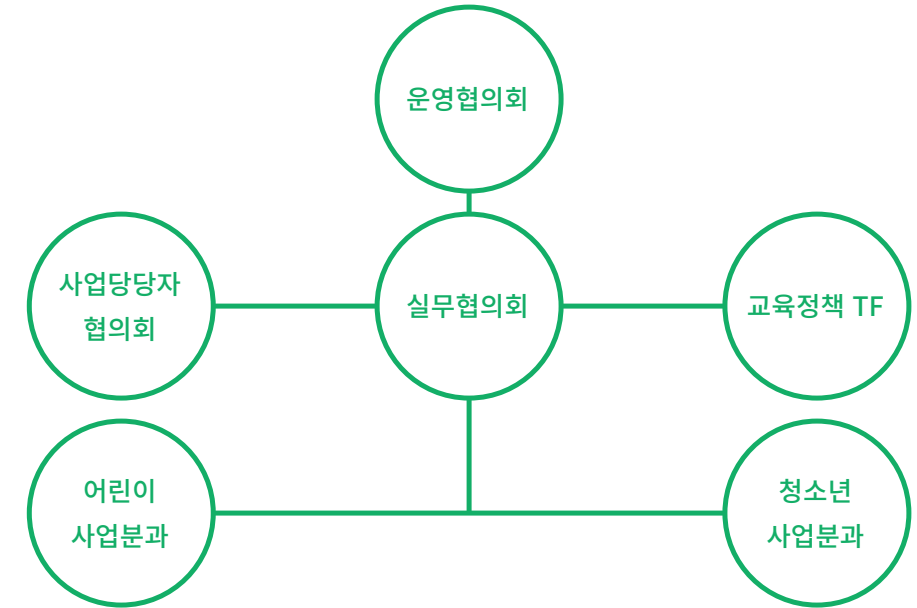




민·관·학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구성 체계도



- * 운영협의회
 - : 1차 2019.06.07. / 2차 2019.12.18.
 - :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추진상황 보고 및 제언
- * 교육정책TF
 - : 2019.06.~2019.10.
 - : 은평혁신교육지구 평가 및 2020. 사업운영 방향 논의
- * 실무협의회
 - : 2019.01.~2019.12.
 - : 은평혁신교육지구 실무 점검
- * 어린이·청소년 사업분과협의회
 - : 2019.06.~2019.10.
 - : 사업평가 및 2020년 사업 계획 의견 수렴
- * 사업담당자협의회
 - : 2019.04.~2019.09.
 - : 사업 현황 및 실무협의회 결정사항 공유, 기관 실무자 의견수렴

민관학거버넌스 구성

	기관(단체명)	민	관	학	전체
1	운영협의회	6	7	6	19
2	교육정책TF	5	4	4	13
3	실무협의회	7	4	4	15
4	어린이사업분과협의회	29	3	9	41
5	청소년사업분과협의회	39	3	13	55
6	사업담당자협의회	32	3	1	36
7	은평혁신교육축제실무추진단	8	4	3	15
	합계	126	28	40	194

민관학거버넌스 운영 현황 (참여자 수)

	기관(단체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합계
1	운영협의회	19	16											36
2	교육정책TF	12	13	12	11	9	10	9						78
3	실무협의회	8	8	10	9	10	8	13	15	12	10	15		121
4	어린이사업분과협의회	31	31	15										81
5	청소년사업분과협의회	44	29	31										109
6	사업담당자협의회	27	23	24	20									100
7	은평혁신교육축제실무추진단	9	9	13	12	11	11	10	13					95

- * '만만한 혁신교육' 공론장
- : 2019. 08. 28. (수) 17:30~20:00
-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의 숲' 49명 참여
- :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혁신교육 5년 돌아보기, 미래교육 상상하기



- *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퍼실리테이터
- : 2019. 04. 05. (수) ~ 06. 05. (수) 7회기
- : 은평구 학부모 26명 참여
- : 은평혁신교육지구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 * '은평학부모 네트워크'
- : 2019. 06. 13. (목) 10:00~12:00
-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다목적 홀' 95명
- :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안내 및 만남의 장

- * 서부혁신교육지구 학부모상상원탁
- : 2019. 09. 19. (목)
- : 마포구 케이터틀 165명
- :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연수 정보 교환 및 지원

- * 서부혁신교육지구 교사상상원탁
- : 2019. 09. 19. (목)
- : 마포구 케이터틀 158명
- : 학교-마을 연계 강화를 위한 의견 나눔

- * 은평학부모 교육간담회 <은평교육, 그 길을 함께 가다>
- : 2019. 11. 18. (월) 10:00~12:00
- : 서울어울초등학교 강당 140명
- : 교육장·구청장과의 교육간담회, 2020년 사업 참여 안내



* 2019 민·관·학 워크숍

- : 2019. 12. 03. (화) 17:00~20:00
- : 파티유플러스 은평점 116명
- : 2019 사업 결과보고 및 2020년 계획 공유, 활동 독려와 감사의 네트워크 장



마을과 학교를 잇다

제3회 은평 혁신교육축제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
2019. 은평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019. 10.25. (금)
10:00-16:00

롯데은평몰 옆 부지
(구파발역 3번출구)

EVENT

포스터 사진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축제 당일에 확인 후 선물 드립니다.
#은평혁신교육축제 #혁신축제 #놀러와 #사진이벤트 #혁신으로 뛰어라

주관 및 주최 | 은평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기관 | 롯데은평몰 서울주택도시공사

제 3회 은평혁신교육축제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2019. 10. 25. (금) 10:00-16:00
- 2) **장소**
롯데몰 은평점 옆 SH부지
(구파발역 3번출구)1개교
- 3) **참여대상**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 및 지역주민
- 4) **참여인원**
관람객 3,000여명, 부스 및 공연
운영참가자 930명, 진행요원 66명,
실무추진단 15명
- 5) **축제 참여 학교**
관내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7개, 관외 고등학교 4개,
총 43개

추진배경

은평혁신교육지구사업 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며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내용

청소년 동아리, 혁신교육지구
사업단체 그리고 혁신파크
입주단체가 부스를 운영하여 학교-
마을 은평공동체를 구현하며,
2019.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알림



1. 공연마당 23팀

: 청소년동아리(개미/내수내만)5팀, 학교 15팀, 사업기관 2팀, 협력종합예술활동 1팀

팀명	소속	내용
1 진관오케스트라	진관중학교	오케스트라
2 은평마을오케스트라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오케스트라
3 라미연극놀이학교	(문화집단)너노로	연극
4 복치기 박치기	은광지역아동센터(개미동아리)	사물놀이
5 하늘소리	진관중학교	국악연주
6 천도락과 천부보은고	선정고등학교	사물놀이,일본복춤
7 이카루스	대성고등학교	밴드
8 연혼	상신중학교	밴드
9 Holy Riders	선정고등학교	밴드
10 아랑	동명여자산업고등학교	치어리딩
11 무대위愛서	광현지역아동센터(개미동아리)	영어뮤지컬
12 뽀뽀뮤직	개미동아리	노래
13 이슈타르	동명여자고등학교	댄스
14 BN	상신중학교	댄스
15 YV	내수내만동아리	랩
16 라온제나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댄스
17 어텐션	진관고등학교	댄스
18 Famous	내수내만동아리	노래
19 레디언스	충암중학교	댄스
20 르클랜	학교연합	댄스
21 새싹	상신중학교	합창
22 코스모폴리탄	은빛초등학교	합창
23 상신중 3-4	협력종합예술활동(교복입은 예술가)	뮤직비디오



2. 체험마당 : 67개 부스

: 청소년동아리(개미/내수내만)25개, 사업기관 23개,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5개, 학부모회 3개, 특성화고등학교 7개, 유관기관 4개

부스명	기관명
1 기부벤티지 일루일루왓 (북극곰의 눈물)	일루왓
2 과학 좋아하는 햄 친구들	RICHAM
3 야 너도 무대 분장 할 수 있어~ 무대위愛서	영어뮤지컬: '무대 위愛서'
4 할로윈 미스터리박스	가온놀품
5 오늘은 내가 분자요리 요리사	SEROC 화학
6 1,000원으로 목걸이 만들래?	원하다
7 헤나&네일아트	SD Beauty
8 알록달록 나만의 포켓, 화학정원 만들기'	BID
9 블록코딩 체험하기	Eniac
10 미니 RC카만 있으면 나도 손흥민!	A.E.C (Automobile Engineering Club)
11 비행청소년	비상
12 나만의 천연 디퓨저 만들기	델타(Delta)
13 로켓은 우리를 싣고	Zyrospace
14 나눔봉사동아리 "모해"	모해(모통이를 비추는 해)
15 내 친구 포키만들기	Beam Project:)
16 우주의 보석을 만들어보자	스텔라윈드
17 희망을 전시하는 잡화점	아카이빙
18 놀면서 배우는 세시풍속	유진문화센터
19 아이들을 살리는 놀이 -아이들놀이사진전시, 응원의포스트잇남기기, 놀잇감만들어보기	은광지역아동센터

	부스명	기관명
20	은평의 보물찾기	교육애펙스협동조합(한국아트공예)
21	은평대전 대학생이 들려주는 소프트웨어 이야기	은평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2	마이원더풀라이프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23	책 속으로 떠나는 열 가지 세상	구립중산정보도서관
24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25	감성아 놀자 (업사이클링 아트)	(문화집단)너느로
26	오감체험진로팡팡	도움사회적협동조합
27	은평마을을 누려보자! [마을누림프로젝트]	은평구평생학습관
28	놀이교육 크리에이터	노는엄마협동조합 보드페스타
29	힘센발 파쿠르, 청소년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	크리킨디센터
30	꿈 더하기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31	모이면 힘이 커진다! 청소년 자치 네트워크!	엔젤스헤이븐
32	삶의 “BUT”이 필요한 순간 “벗”과 함께	신나는애프터센터
33	너와 나의 '꿈채움'	마음컨택상담센터
34	은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마음톡(Talk) 나눔톡(Talk)	은평구청소년지원센터
35	민화야 놀자	은평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	우마미틴- 보이는 라디오 체험	민화팩토리
37	디.미.크 영상보고 가~	우마미틴(우리마을미디어틴)
38	마이크부스	지기크루
39	직접 로봇 조종하며 놀기	알고리즘
40	‘소년병, 책 대신 총을 들고...’	선일의 뮤즈 잔월
41	Retro Game Center	셈틀을 괴다
42	마을 숲은 생태교과서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43	함께 만들어가는 Happy Dream	은평교육복지센터
44	유 퀴즈 SDGs?	도원교육
45	알바-노동,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은평노동인권센터
46	우리의 가치 또 같이' 슈링클스 만들기	갈현청소년센터 씬텀

	부스명	기관명
47	학교와 마을이 만나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48	은평의 혁신학교를 알아보자!	은평구 혁신학교 (녹번초,대은초,수리초,어울초,연천초,은빛초)
49	소프트웨어 1등!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50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구.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
51	Dream take out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
52	자전거 균형잡기 체험	약속의자전거
53	마을속 사회적경제(아이디어 대회)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54	그림책 처방전	주식회사하든북
55	내 손으로 에너지 만들기, 적정기술	마을기술센터헨즈
56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 슈링클스 열쇠고리 제작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57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 컬러비즈공예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58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은평메디텍고등학교
59	3D 디자이너가 되는 첫걸음	에일디자인고등학교
60	글로벌 식탁으로의 초대(필리핀 룡샤:1,000원)	주식회사마을무지개
61	명품편의점	역촌초등학교 학부모회
62	송실고 창업동아리 YEEP과 함께 하는 간이매점, 가게가게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63	힐링홀릭과 함께하는 눈으로 차마시기	Medi Holic
64	드림나래 바&카페	드림나래
65	충암고등학교창업동아리	C.C.C
66-7	먹 Go 福 복 Go 분식점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학부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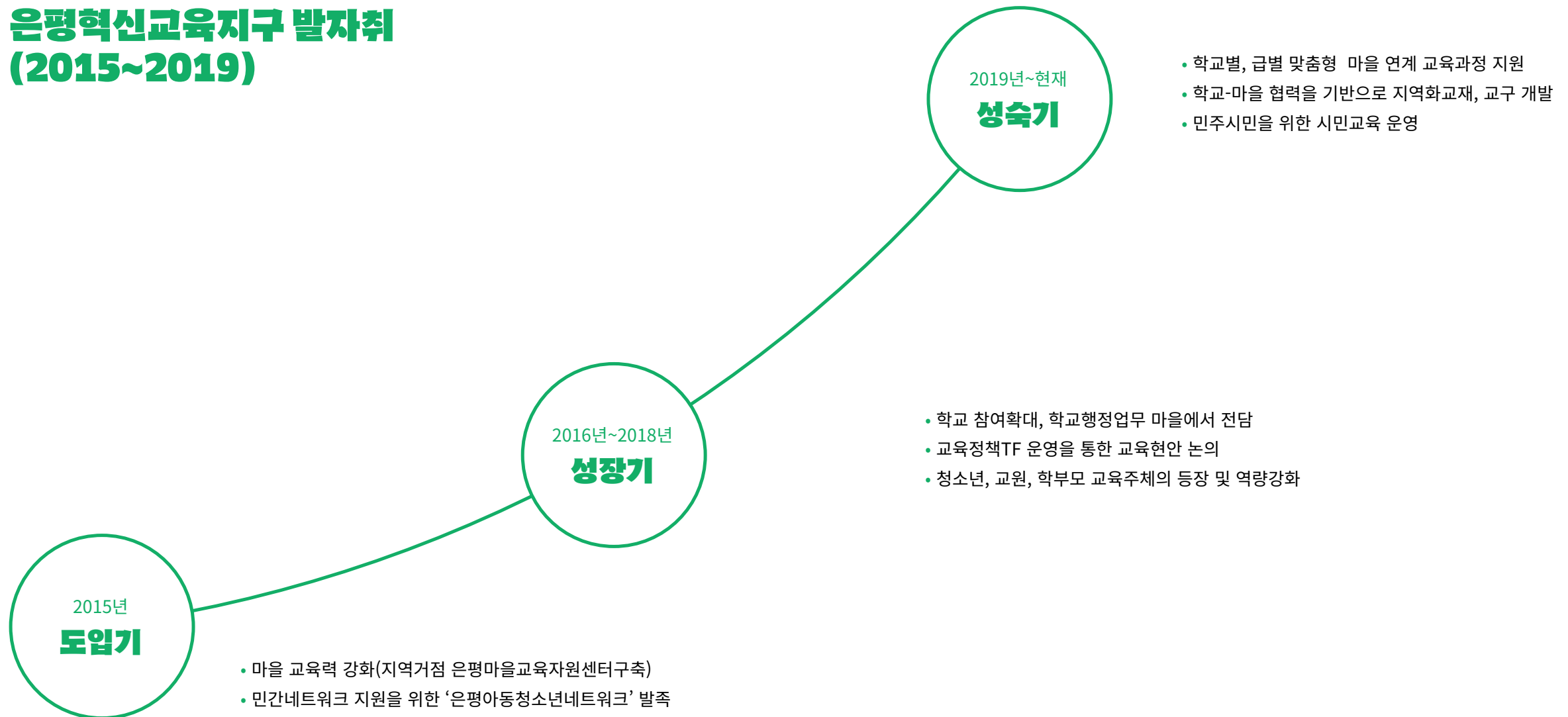
3. 끼마당 및 이벤트마당

: 상설무대로 미니 공연장 설치, 펀치&망치 게임기, 피아노 설치

2019 평가

2019 평가 및 2020 계획보고

은평혁신교육지구 발자취 (2015~2019)



2019 평가

(우수사항)

사업계획 과정

- 지역교육 현안을 반영하여 비전과 운영원칙 수립
- 지역기관들의 컨소시엄 을 통해 기관 간 협업과 시너지
-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운영의 내실화

사업실행 과정

- 주체별 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 운영
-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점검·공유
- 초중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 청소년을 주체로 세우고 민주시민 성장에 기여

2019 평가

(우수사업)

- 1) 지역화교재 제작 및 마을탐방길 개발 마을누림
- 2) 민주시민 성장을 지원한 시민교육
- 3) 학교 내 자치활동을 지원한 5·2·2 학급자치
- 4) 초중고 급별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지원

2019 평가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은평혁신)

- 점검체계(모니터링단) 제대로 구축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혁신 모니터링단 구축하여 운영

- 주체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지원

2020. 교육적 상상 교육주체들의‘하고싶은 혁신사업’지원

- 교육정책TF 임시조직적 성격 보완

은평혁신교육지구 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구조로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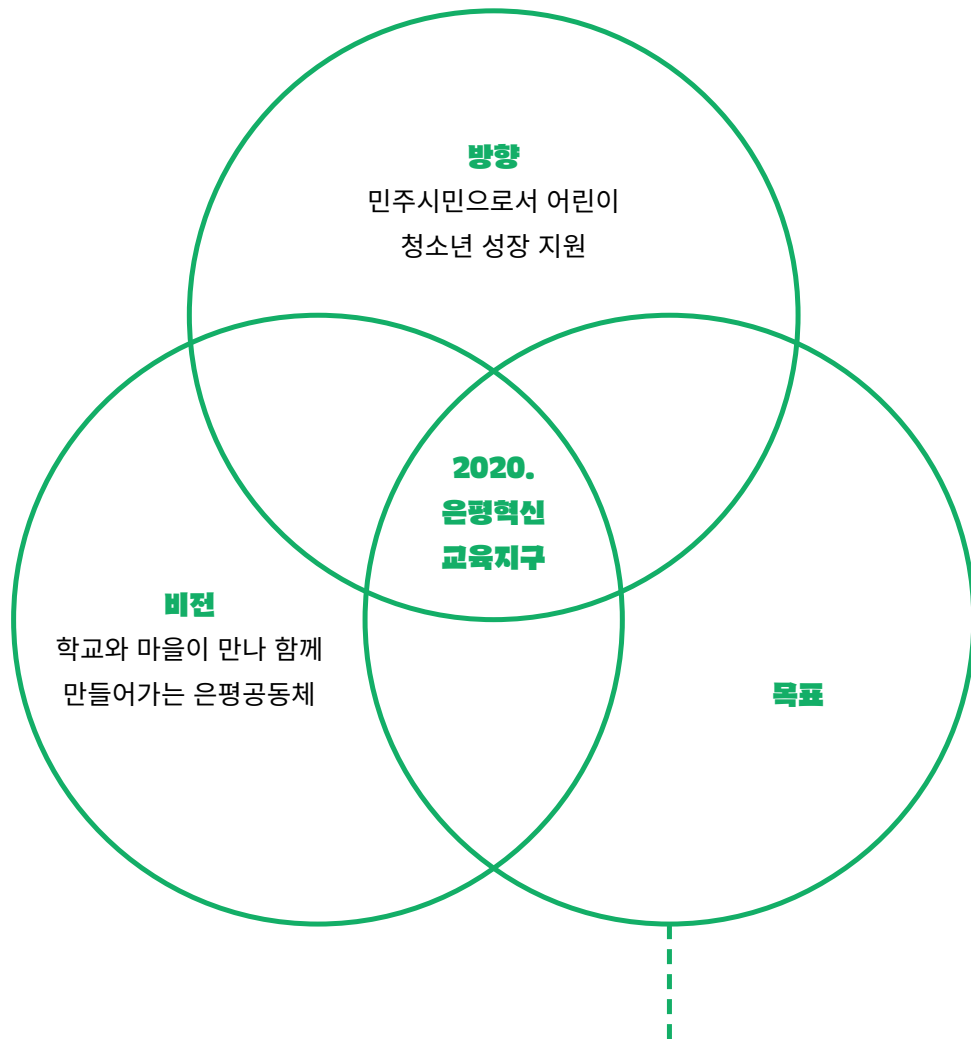
- 5·2·2 학급자치 지원대상의 중복검토

학년을 설정하여 마을교육과정 집중지원



2020 계획

새로운 상상과 비전



-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정서지원 체계구축
- 교육주체의 자치활동 지원
-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내실화
- 민관학 거버넌스 확장과 성숙

2020 주요사업

마을누림

- » 초3 마을탐방
- » 마을누림프로젝트
- »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진로

- »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오감체험 진로팡팡
- » 중고생을 위한 진로진학 은평대전
- » 혁신가와 진로체험을
- »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
- » 청소년 이노베이션로드

학교안팎자치

- » 5·2·2 학급자치
- » 자치학교
- » 청소년자치네트워크조직
- » 청소년 친환경라이프 아망

심리정서

- » 시민교육(인권, 성인지)
- » 초등상담멘토
- » 자살자해예방교육
- » 학업중단속려제 꿈채움
- » 생명이끄미
- » 은평형 마을학교
- » 긴급지원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

- »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
- » 수업방법개선 협력강사 지원
- »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 »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 »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 » 교육적 상상 '주체별 사업'
- » 은평혁신교육지구 활동발표

초·중고 급별 마을교육과정 집중지원



초등학교

- » 예방) 시민교육(인권, 성인지)
- » 개입) 초등상담멘토



중학교

- » 예방) 자살자해예방교육
- » 개입) 학업중단속려제 꿈채움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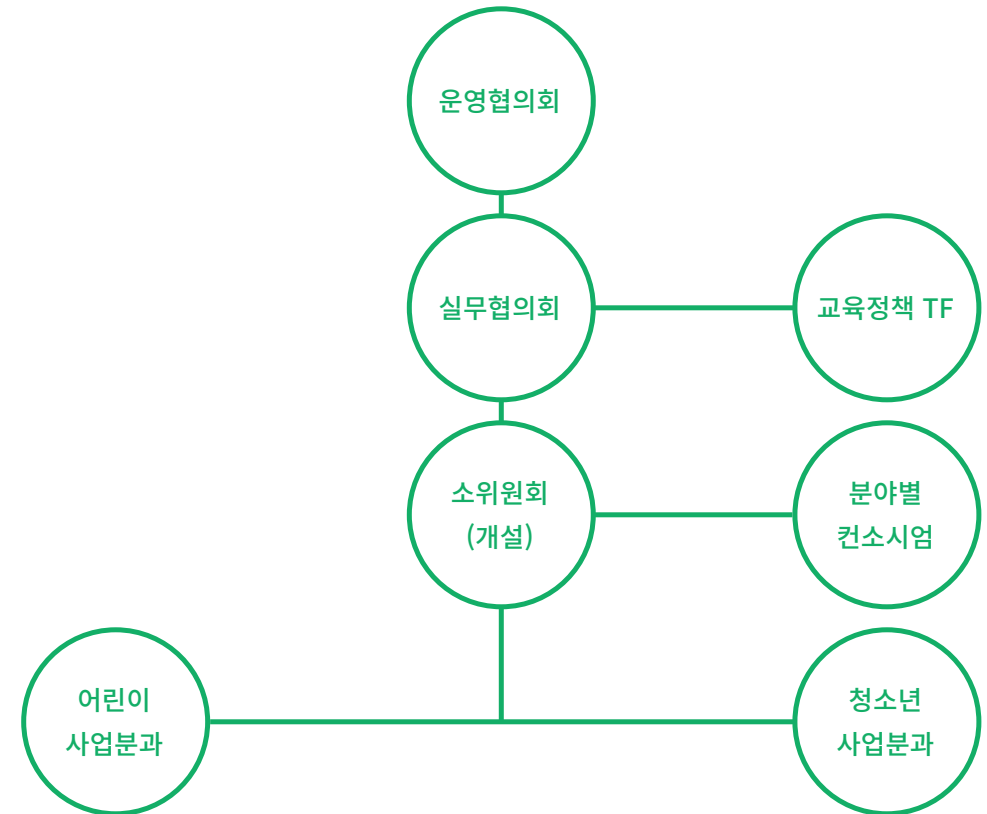
- » 예방) 생명이끄미
- » 개입) 은평형 마을학교



초·중고 긴급지원

- » 긴급지원) 촘촘 솔루션회의를 통한 지역기관 연계
(은평구-지역기관-서부교육지원청-학교)

2020 계획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적 상상 - 주체별 사업 '교육적 상상을 현실로'



청소년이 원하는 혁신사업

- » 혁신사업 모니터링 청소년 역량강화
- » 혁신사업 모니터링 마을강사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부모가 생각하는 필요한 혁신사업

- » 혁신사업 모니터링 학부모 역량강화



은평혁신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연구모임

- » 혁신사업 모니터링 마을강사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부록 — 생각나눔 글

‘아이와 어른 사이’

청소년위원 김소담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성인의 길을 향해 발을 내딛으려고 준비 중인, 아직은 청소년인 김소담입니다. 제가 처음 혁신 교육을 알게 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2018년 여름, 친구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동아리로 알고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청소년 분과위원'이라는 위임장까지 받게 되며 나름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동이 있었고 사실 적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분과가 합쳐지기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혁신', '민.관.학', '네트워크' 등등의 말들이 오고 가는 워크숍이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시도와 변화들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정체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워크숍에 참여할 때마다 청소년, 선생님, 학부모 각각이 내는 소리가 피아노 건반의 한 음 한 음과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서로 내는 목소리는 그 높낮이와 무게 모두 다르지만, 그것들이 꾸준한 소통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처럼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혁신 교육을 향한 첫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분과위원을 하기 전에는 은평구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우리 마을과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미프로젝트 중 하나인 '은평구 내 청소년 기관 알아보기'를 하기 위해 기관에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지니고 있었지만, 기관 선생님들의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은 모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 마을 축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마을이 혁신 교육을 향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어설피고 서툴지 몰라도 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들과 그 변화를 기꺼이 만들어가려는 열정 넘치는 청소년들.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들까지.

다만,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좋을 거야'라는 어른들의 생각보다는 '저희는 이게 좋아요!'라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아이와 어른 사이. 과도기적이고도 불안정한 시기.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가장 순수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저는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고 은평구를 더 살기 좋은 마을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그 눈높이는 변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분과위원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들과, 제가 냈던 의견들, 분과 친구들과 기획했던 프로그램, 목소리 높여했던 홍보들 모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좋은 교육을 위해 '성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다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그래야 합니다. 청소년 혼자는 바꿀 수 없고, 어른들, 그들만으로는 개척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큰 소리를 내고 소통의 길을 열 때, 그 때 비로소 혁신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좋은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과 그에 따른 노력들이 더해질 때 혁신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혁신과 감사한 은평의 사람들에게’

청소년위원 김은지

고등학교 1학년 연극부 동아리의 부원으로 우연히 참가하게 된 은평구의 축제 혁신교육페티벌을 계기로 처음 발을 딛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청소년이 2년이 지나서는 구청장님께 상도 받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과연 나 혼자 이뤄낸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신 여러 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며 사업에 대해 알려주시고 새로운 사고와 넓은 시각을 갖게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참가를 도와주신 구청 관계자 분들 마지막으로 함께 회의를 해나간 많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상은커녕 혁신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이렇게까지 알게 해 주심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듯 혁신교육에 대해 공부하며 늘 느낀 것은 혼자서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이 물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혁신 교육이 원활히 발전해 나가려면 학교와 지역, 학생들, 선생님들 등등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처음 내가 혁신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보다 확실히 많은 친구들이 혁신교육을 알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순전히 내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더 다양한 친구들이 혁신교육을 통해 '이런 것도 마을에서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이전보다 은평의 혁신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내 빈자리를 다른 동생들이 열정으로 채워주었음 하는 바람도 있다.

은평의 혁신은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몇 년 뒤 "너 은평대전이라고 알아?" 혹은 "너 혁신교육 페스티벌 알아?"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이든 "나 그거 참여해봤어! 너무 재밌었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혁신 교육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장했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친구들이 "너는 무슨 회의를 하러 가는 거야?"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열심히 혁신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청소년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교육으로 거듭났음 한다.

조금 뜬금없는 말일지 모르지만 평범한 내가 혁신교육을 위해 했던 노력들을 운 좋게 높게 평가받아 상도 받고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혁신교육과 관련된 기억은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은데 글썽씨가 좋지 못해 투박하게 전하게 되는 게 너무 아쉽다. 또 나처럼 자치를 통해 다른 본인의 모습을 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또 그를 통해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올 한 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토대가 되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해 동안 혁신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은평 파이팅:-)

고등학교 일학년 연극부 활동을 하다 은평혁신교육축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실 그 축제를 통해 혁신교육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 그저 이런 축제도 있다는 것과 청소년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어 축제 운영을 했던 청소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청소년 분과위원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이름 때문일까, 처음에는 거리감이 좀 느껴져 들어온 걸 후회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함께 학교의 교육에 대해 뭐가 부족하고 괜찮았는지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하는 것은 색달랐었다. 또 그것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청소년분과회의 말고도 각 분야로 나눠져서도 분과 회의를 하였다. 나는 그중에 독서분과 회의에 참여했었다. 그곳에서는 독서 관련 사업이 거의 초.중생 위주였던 것과 그렇다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

후반에 진행되었던 청소년 공론회에 청소년분과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었다.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기 위해 온 친구들이 많았던 건지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쉬웠지만 많은 친구들의 학교에 대한 의견들을 알 수 있었고 생각보다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놀라웠었다. 그런데 그 공론회의 결과가 어디에 쓰인 걸까..? 만약 반영이 된 것이 있다면 뿌듯했을 텐데 다음에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도 역시 청소년위원과 마을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이 바뀐 탓에 혼란스러웠다. 이제 겨우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름도 바뀌고 구성도 바뀐다니.. 또다시 적응하기는 조금 힘들었었다. 3년 동안 혁신교육을 알아오면서 생각한 것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혁신교육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 같다. 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참여하게

된다면 좋은 방안이 마구 나올 텐데 그 점이 아쉽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널리 퍼져서 나중에는 은평구의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학부모, 혁신교육 안에서 비전을 품고 행동하다.’

어린이사업본부장 학부모위원 송언희

은평혁신교육을 알기 전, 나는 은평구에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마을에서 이웃들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산책마을 작은도서관에서 관장으로 봉사를 하며 나름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은평혁신교육사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참여가 내 삶과 비전을 많이 바꾼 것 같다.

2017년 우연한 기회에 은평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을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을의 부모’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평혁신교육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마을의 부모’분과에서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며 학부모의 재능과 전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계기로 나와 함께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분과 지역에서 봉사하며 만난 분들의 재능과 전직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대부분 육아를 위해 경력단절이 되었고, 나는 마을의 우수한 보석 같은 자원들의 감춰진 능력을 다시 발휘하여 빛나게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1년의 학부모위원 활동으로 나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고, 고민도 많아졌다.

2018년에는 ‘책 문화 보급과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 ‘서.은.협.(서울 은평구 아파트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책뜰에 작은도서관과 학부모위원이 아닌 산책마을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책동아리 사업주체로 참여했다. 작은도서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

작은도서관 책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모임의 특색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책동아리 모임을 직접 방문하여 각 도서관에서 책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을 보며, 소모임 운영과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조언과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책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보석 같은 마을의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은평구 교육콘텐츠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다. 그 결과 2019년 교육콘텐츠 공모사업에 마을강사로서 책동아리원들이 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학교-마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이때부터인 듯하다.

올해 2019년...

퍼실리테이션 교육생, 어린이분과 학부모위원, 신도초 학부모회, 그리고 마을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로서의 나의 한 해를 되돌아본다.

협력적 논의를 돕는 퍼실리테이션 훈련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 신념, 기술에 대해 함께 배우고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년의 심화과정을 통해 갈등조정자로서 더 훈련되진 학부모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어린이분과 학부모위원으로서

올해 개인적인 일정으로 전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학부모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많이 알아주시고 참여하시지만 아직 모르는 학부모들이 계시니, 혁신사업에 대해 내년에는 나부터 주변에 널리 홍보하려고 한다.

혁신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에 대한 나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첫째와 둘째가 다니는 신도초등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올해 시작했다. 마을 작은도서관에서 활동가로서 공모사업을 통해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며, 2년째 ‘서.은.협.(서울 은평구 아파트 작은도서관 협의회)’과 신도초등학교가 MOU를 맺고 방학마다 함께 ‘신도초 책 읽기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마을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힘들어 시도조차 안 했을 일이다.

나의 삶은 혁신교육 참여와 함께 비전을 품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

2020년 은평혁신교육은 ‘학교와 마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은평공동체’ 비전을 품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려고 한다.

내년에 많은 학부모위원이 참여하여, 공통의 비전을 품고, 교육의 주체로서 함께 행동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부모 자치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그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부모에서 학부모, 그리고 다시 마을의 부모로’

어린이사업부와 학부모위원 이호준

어느새 12월이다. 기해년 올해는 같은 돼지띠인 딸과 족두리봉에 올라 해맞이를 하며 힘차게 시작했었다. 새해 첫 마음으로 한 해를 살지며,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생각 나눔 글 부탁을 받고 지난 3월에 낸 학부모분과 지원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돌아보았다. 분과회의,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수, 은평교육콘텐츠 연계사업 모니터링, 민관학 워크숍 등등에 참여했었다. 작년에 비하면 활동도 적었고, 참여도 적었던 것 같다. 특히 학부모 정책포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후회가 된다. 아이 초등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활동과 봉사활동, 마을활동 등과 함께 엮어져서 이래저래 바쁘게 살기는 했지만, 학부모위원으로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많이 아쉽다. 학부모분과의 활동이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해 작은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 평가를 해 보자면, 겨우 낙제를 면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다.

돌아보면, 3년 전 혁신교육지구 9개 사업분과의 하나인 ‘마을의 부모’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게 되어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알게 되었다.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부모들과 성과를 나누는 행사를 하고, 학부모 토론회도 하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축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이후에 좀 더 다양한 활동과 깊이 있는 참여로

안정적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열정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든다. 체계가 잡히고, 혁신교육의 다양한 사업들과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전반을 바꾸는 흐름에 힘을 실리기보다는 불기보다는, 현재 교육 안에서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로 역할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은평구청 사업비로 진행한 ‘부모학교’에 추진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마을로 나왔다. 세상은 학생의 부모인 나를 학부모라 부르지만, 그것은 호칭일 뿐, 나는 아이의 ‘부모’로 제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했었기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취지에 공감했고, 학부모로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마을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었다. “그래,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의 어른이 되자!” 3년째 활동을 하면서, 어느새 학부모가 혁신교육의 일주체로 당당히 나서고,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껴진다. 또한 혁신교육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더불어, 그것이 개인의 삶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내년에는 아이가 중학생이 된다.

“어차피 중학교부터는 입시야, 언니”

혁신초등학교 학부모로 함께 활동하고, 혁신교육에 공감했던, 중학교에 먼저 아이를 보낸 동네 지인의 말이 귓가를 때린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모습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도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어릴 때부터 사교육과 경쟁에 열을 올리고,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욕망이 더 커진 현실을 볼 때 더욱 절망스럽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무너진 교실의 비극과 불행한 아이들의 삶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냥 두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의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도전을 받는 때가 온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만이 살아남는 것이라지만,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인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말이 좀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서, 이 하루하루가 모여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전환을 향한 길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학부모 교육 참여, 진솔한 혁신이 필요한 지점’

청소년사업본부장 학부모위원 박희정

은평혁신교육지구 그 흐름에 동참해
학부모위원으로 3년을 함께 했다.

자녀를 양육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의문이 증폭되던 시점에 기억하고
찾아 주신 선생님의 권유로 호기심
반 혁신교육지구 위원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던 기억이 떠오른다. 혁신의 방향이
모호한 그 시작을 3년의 위원 참여가
갈증을 해소하게 해 준 확답을 얻었다
하기보다는 지금도 어렵고 부족한 시대의
교육 변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로
마을교육 공동체 안과 밖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해 청소년 분과 학부모위원과
분과장을 위임받아 더 확장된 참여가
있었고

혁신교육지구의 진행방향과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짧은 임기에
분주히 참여하려 노력하였다. 자발적으로
분주했던 그 짧고도 긴 하반기 행보를
정리해 본다.

상반기 학부모사업으로 갈등과
대화의 두 대표님을 통해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알차게 수료하여 퍼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분과회의 진행에
참여하였고 더불어 주체별 활동 상호
이해에도 도움을 준 확대된 시간들이
있었다.

개인적인 활동의 회의
테이블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진행 기량을
습득하였고 서울시의 공론장 등에서 만난
퍼실리테이터들의 활동을 유심히 관찰까지
하는 고급진!!? 여유를 부렸던 흐뭇한
능력을 준 감사한 경험의 기억도 있다.

멋진 두 분을 또 만날 수 있게 차기
연도 심화교육이 진행된다 하니 감사하고
갈등 조정과 과정 또한 기대가 큰 부분이
되겠다.

혁신교육축제 TF위원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위원님들의 협업은 원활했으며
난관이 있어도 적적 해법을 찾는 능력과
노력은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프로가
아니기에 완벽한 장면을 만드는 기술력은
부족했을 수 있으나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간 그 시간들을 함께 했음에 나름
의미가 크겠다. 거기에 재치!, 상큼!,
귀욤!!, 긍정!!, 무한 재능을 겸비한 교원
두 분 세영쌤과 요섭쌤의 뒤편 믿고
보는 능력을 발굴한 건 올해 축제 진행
재원확보의 가장 큰 수확인 듯싶다.

은지와 다한 군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은평을 대표하는 활동 참여와
진행 솜씨도 무척 돋보인 참 사랑스러운
청소년위원들의 모습이었다.
혁신지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축제 앞 주에 진행된 청정수
축제 때 보았던 다한 군 멤버들의
부스운영은 어른보다 나은 고객 맞춤 응대
노련미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소원목걸이 잘 간직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의 성장에 힘이 되고 온기로
체감되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봉사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다.

모두 다 우리의 아이들인 것이다.

실무협의회 위원 참여로 혁신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구조와 사업 흐름의
이해를 높였으며 학부모로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회의 참여를 미루지 않으려 일정을
조정하여 넉넉히 배분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였다.

내가 아니어도 진행될 수 있는
일로만 생각했다면 모든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나 나와 우리의 성장과 발전 이리라
귀담으며 참여한 회의들은 분명 또 다른
시각과 성장에 유의미함이 있었으리라
본다.

한해 은평혁신교육지구 활동과
운영을 평가받는 대면평가까지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한듯 하여 뿌듯하기도 하다.

민관학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방향은 구의 색마다 다르다.

그저 학부모로서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갖추어진 모양의 장식이거나 학부모
성장의 발전이 도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함이 사건이 되겠다.

교육의 3주체로 세워진 이유를
학부모 스스로도 알고 배우며 자녀와
함께 성장하여야 한다. 내 아이만을 품고
그 아이의 진로진학에 아이의 성장만을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하는 짧은 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 주변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환경에
기반한 포용력 있는 부모의 시야도 넓게
갖고 다양한 관점의 배려를 나눌 수 있는
역할들의 여유를 바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배우며 물 마시듯 작게라도

녹여나 있는 주민이고 시민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곳이 ‘혁신 안이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가 아닌 작게는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로,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로
어우러져야 하기에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짧은
사건을 남겨 본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에 은평소통대표로 뒤늦게
참여하여 하반기 워크숍과 포럼 위원으로
올해 자치구마다 학부모가 바라는
문제들을 모으고 중앙위에 정책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다. 21개 자치구의
학부모위원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과
방향을 알고 나누는 자리가 의미 깊었다.

모두가 봉사로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그들의 노력이 명문화된 지원
체계 속에 안정된 참여의 교육주체로
자리매김되기를 학부모네트워크 포럼이
끝나는 시점에 느끼는 바람이기도 하였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방향성과 추구하는 색이 다를 수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100인
100색 시대, 다름이 개성이 되고 존중되는
시대로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어느 길에서도 혼자 가는 길이
필요하고 함께 가는 길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덩어리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덩어리의 방향이 함께

고민되고 타협하여 통일된 완만한 합의,
화합 지점이 있어야 원하는 목표로
굴러감을 우리는 안다.

지금 어디에서든 학부모로
참여하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과 함께 해야 하며,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다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 참여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을
아는 학부모로서 성장하고 작게는
은평교육 혁신의 또 한 축이 되길 바라는
봄바람 같은 마음을 가져 본다.

‘쑥쑥~ 성장한 학부모입니다.^^’

청소년사업부와 학부모위원 김미정

제가 혁신교육 학부모위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아이의
엄마로서 자녀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꿈을 찾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부모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아닌
객관적이면서도 올바른 교육의 참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혁신교육사업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과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정확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둥절, 대략 난감!!!

그런데 4월부터 이루어졌던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학부모(어린이,
청소년) 위원들과 많은 시간 소통하게
되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퍼실리테이션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회의에
퍼실리테이션으로 참여하면서 학부모의
목소리뿐 아니라 교사, 사업주체, 특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조금씩 “아~ 이게
혁신교육이구나!”, “교사나, 사업주체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청소년들이 꿈꾸는 혁신교육은
이런 것이구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어른들의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

청소년사업본과 학부모위원 김연미

비전은 이런 것이구나!”..... 느낌표의 연속이었습니다. 까막눈인 아이가 글을 막 깨우친 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민·관·학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혁신교육사업을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청소년들의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인다면 이 빠진 톱니바퀴의 조각들을 찾아 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찾기를 함께 하면 덜 힘들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신교육 학부모분과위원을 통해 올 한 해 내 자녀뿐 아니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갈 마을의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의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한 여러분들 덕분에 올 한 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자 했던 제 자신도 쭉~~~욱 성장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이야기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였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맹자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여 오늘날 현명한 부모의 표본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혁신교육의 시대에 맹자 어머니의 교육관을 재해석해보는다면, 삶과 죽음의 틈새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매진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맹자의 어머니가 보여준 교육관은 부모에게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하며 때때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국어 시험 문제의 지문 위에 있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장을 보면 정답 있는 공부를 해야 대학진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혁신교육의 시대는 ‘새로운 답’을 찾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름의 세계관을 지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은 부모들의 철학과 의지를 흔들리게 한다. 미래의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지는 대신에 ‘해답’이 요구될 것이고 점점 속도감이 빨라지는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가 일상화되는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맞는 답’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들 한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일이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화의 흐름에서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 확대와 ‘진로교육’과

같은 공교육의 변화들을 접하고 보면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
 혁신교육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배움이 즐겁고 학교 가는 일이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배움이 즐겁지 않고 학교 가는 게 싫어지는
 것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공부가 재미없어서 그렇다. 학교와 선생님,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부의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선행학습으로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
 오면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 공부 자체의
 즐거움과 재미가 없어진다. 결국 학교에
 가는 즐거움은 사라진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교육은 단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나 스펙을 쌓는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혁신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부모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서열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으로 가는
 막차라도 타보려고 안간힘을 써볼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경쟁력을 키워 또 다른
 선택의 길로 인도할지는 어른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배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배우는 즐거움이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고,
 또한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배움이야말로
 혁신교육이다.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지 못하는
 교육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 그 자체를 설레는
 마음으로 즐기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나라와 사회, 가정에서부터 어른들이
 뒷받침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면에는 교육
 관점과 시각이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체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수능에
 맞춘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에
 맞춰 기다려주는 교육과 어른들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상에서 한 번씩 냉장고 속을 정리
 정돈하듯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신념, 방법론 가운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은 과감히 폐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진로
 지도를 아이들에게 내밀며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에 비추어 자녀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심코
 믿고 있던 가치 관념들의 유통기간을
 확인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들의 ‘자기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
 있음과 언제든지 자유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함께한 은평 혁신교육지구...’

청소년사업본부 학부모위원 오세현

은평구에 거주한 지 고1인 큰 아이와
 동갑인 년 수가 되었다. 살면서 아이가
 아니었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일들과 아이의
 동선에 따른 환경, 미래의 삶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분 과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부끄러움이 함께
 공존한다.

보통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혁신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고쳐가며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혁신이 교육과
 만나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되어지고 친근감까지 생기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이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꿈과 미래를
 위해 학생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워 나가는 교육과정이라
 생각한다.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자원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

들 중 하나가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훌륭한 인적 자원의 활용,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다.

올해 여러 차례의 회의를 참여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습을 보며 어리고 철없는 어른의 잣대에서 보던 청소년들이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요구를 목소리로 내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이 겪을 미래가 맑게 보여 짐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혁신교육을 빌미로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참여하는 사업담당자분들의 모습에서 어른으로써 미안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좋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로 하겠지만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의미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자라 날 수 있도록 어른인 우리가 길 안내자 이자 협력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끈대로서의 어른이 아니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마음을 받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고 질타가 아닌 격려를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그리고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단순한 학부모로서의 입장으로 혁신교육의 홍보 부족과 교육을 내용 선택이다.

아직도 혁신교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모르지만 만약 학부모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혜택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은평구가 혁신교육지구이며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혁신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는 다수의 학부모 들은 알고는 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혁신교육을 안 하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하나 일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혁신교육의 실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평구 관내의 모든 학교가 ‘은평 혁신교육지구 학교 선택제 사업’을 통해 선택한 교육을 학교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혁신교육의 참여자는 학생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어떤 혁신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선택을 할 때 학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되고 선택권이 있는 교육 관계자의 의견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의견이 번거롭다면 학생들의 의견이라도 조사하고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 거라는 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른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에너지들이 모여 쌓이면

작게라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작은 변화로 시작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배해진 현대 사회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인성을 가진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는 청소년을 위함도 있지만 나를 포함한 주위의 여러 사람들도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질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혁신의 의미처럼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된다. 감시자가 아니 동반자로, 그리고 협력자로 시민의식을 갖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매력적인 은평 혁신교육지구의 활동이었다.

끝으로 은평 혁신교육지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배우고 성장하는 아직도 서툰 어른’

청소년사업본과 학부모위원 한성순

내 이름은 한성순이다. 나를 표현하는 말들은 참 많기도 하다. 선생님, 봉사자, 대표, 실장, PD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밖에서 불리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라는 호칭과 주부라는 호칭, 아내, 며느리 등 정말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모든 이름들에는 역할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진다. 나는 그 많은 이름에 맞게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할 뿐 더 이상 욕심을 갖지 않는다.

길을 가다 게시판에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그냥 스쳐지나도 될 당연한 문구 같지만 나에게서는 어른답게라는 말이 정말 크게 보였다. 그 짧은 글 중에 내가 제일 무게감이 갖는 것은 어른이다. 어른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바빠 가던 길을

멈추게 했고, 내 발을 묶어 버렸다. 내가 정말 어른인가?

나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주민등록증을 보며 내가 성인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이지 나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성인이 해 야할 많은 일들을 어찌어찌 배워가며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른이라는 말도 “다 자란 사람, adult, grown-up, elder, full-grown man”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가 정말 다 자란 사람이란 말인가? 민망할 따름이다.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나에게 스승이고 거울이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 신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생경스럽다는 표현이 더 적합 할수도 있다.

신기한 물건이라도 보듯 요리조리 살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다. 기특했다. 물론 말썽을 부릴 때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나는 10여 년이 걸렸다. 그사이 둘째도 낳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 조금 덜 생소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느림보처럼 느릿느릿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서 정말 소중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정의하는 순간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 한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려 한다.

몇 달 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것은 “내가 영어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일단 당장 12월에 미국을 가야 하는데 자유여행이다 보니 영어가 좀 필요할텐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마치 아이가 어른에게 물어보듯이 말이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큰 주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에게 설명해 준다. 고등학교 1학년인 작은아들의 답은 이랬다. “엄마 제가 보기에 영어를 갑자기 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가는 동안에 필요한 단어와 필요한 질문 정도를 정리해서 암기하고 가시고요. 다녀온 후에는 영어를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대답한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다. 그러면서 간간히 유튜브에서 내가 필요할듯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검색해서 나에게 특으로 보내준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아이들이 성장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어른인 내가 성장하는 것일까? 나는 늘 아이들에게 배운다. 그러니 아이들은 나에게 대단한 스승일 수밖에 없다.

혁신교육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정말 생소하다 느끼며 이것은 뭐지? 하며 들어온 이곳도 벌써 몇 해째. 나는 이곳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고 배운다. 새로운 대단한 뭔가를 만드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니다. 단지 그동안 틀 안에 가두어 둔 교육이라는 것을 틀을 없애는 작업이 혁신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틀에 가두지 않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나를 어른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그저 사람과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유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언해주며 가야 하는 것이 어찌면 서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산교육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은평혁신교육

2020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가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3년전 2017년에 제시된 혁신교육지구란 모두가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로 되어있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새로운 교육모델 실현이 아니라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실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교육모델일 수밖에 없지만

모델을 창출해야하는 결과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주목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의 변화는 5년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이 변화했고 교육현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결합형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이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공교육의 범위가 마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사회불평등의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으며 입시,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경쟁 속에 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육문제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지역에서라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배움을 만들어보자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삶의 교육을, 살아가는 마을을,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마을 내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5년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2015~2017 사회참여 신나는 상상, 2018~19년의 재미프로젝트·내수내만, 2015~현재까지의 꿈꾸라 캠프 등 청소년 활동 동아리를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상상해봐,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마을에서 친구들과 해보면 어때?”에서 시작 한 동아리 지원을 통해 다양한 능력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동아리활동에서 나아가 진로와 자치, 위기지원과 마을누림 등 모든 영역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참여가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물어야 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지? 무엇이 필요하지” 라고 묻고 답해야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전체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치입니다.

청소년자치, 교사자치, 학부모자치, 학교자치, 마을자치가 모이면 교육자치도 이루어집니다. 마을에서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면 꼬여있는 교육문제도 변화의 물줄기를 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부터 해야한다면 지금 은평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이 마을교육을, 학교교육을, 사회를. 우리사회의 교육을 바꾸는 나비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2019년 37개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 ·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33사업을 진행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분들, 서부교육지원청 협력복지과, 구청 시민교육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걸음 나아간 은평혁신교육을 기대합니다.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이미경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이미경
편집인 김지후
발행처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50(진관동) 승객대기동1, 은평마을속학교
Tel (02)351-3099
E-mail epsmiletown@daum.net
website epafterschool.com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